제자훈련 성경공부에 의한 교인 갈등 극복과 변화 연구

A STUDY OF OVERCOMING CONFLICTS AND TRANSFORMATION THROUGH DISCIPLESHIP AND BIBLE STUDY

By

LEE, KYU YEO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NSTRY

Bedford, Massachusetts

2014

A STUDY OF OVERCOMING CONFLICTS AND TRANSFORMATION THROUGH DISCIPLESHIP AND BIBLE STUDY

By

LEE, KYU YEON

The church is a "community" with its members comprise of many different people. The birth and the fate all depends on God's will. And it is community of people that knows Christ and seeks live as his disciples. The term used is 'Koinonia,' which emphasizes community, fellowship, and unity. Humankind's relationship with God is that they there are created in His image. As spiritual beings meant to communicate and have fellowship with God, they find joy only in Him. Thus by nature, people are meant to have fellowship with him. Therefore without God, life becomes solitude.

The word 'eklesia' is also used specifically for a place where a group of members join together for a meeting at specific times. Thus the term for church, 'eklesia' is not just used randomly, but a comprehensive gathering of members. From these two words, we can see that the church derives from God, engages in fellowship with him, and mutually interacts through the unity of members.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comprised of those who are freed, saved, and living in thankfulness through Christ. The legacy of Christ is fulfilled through this community called church. The church is indeed the true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but at the same time the church which resides in this world is not the kingdom of the true God. It is in this worldly church that there arise conflicts. And no matter what kind of shape it may come from, if it is not treated in the right way, it affects the whole church, divides, and ends with deep pain. The conflict that arises in church is even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mmunities.

The immigrant church is homogeneous mix society and culture. The church often becomes a place where these immigrants, who are always in pain from foreign society, can seek to be recognized from other people. However, this often deviates the church from its true purpose and rather turns it into a battlefield. And at times the church becomes a place to grab power. And thus the church has the danger of turning from a true kingdom of God, into a business or a social gather for their business.

What is the root of the problem for these churches? The root of the problem lies in when the role and teachings of the church become distorted. It is much harder for 1st generation Koreans to adapt to life in America, than 2nd generation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the same environment. Their tough lives inevitably force focus only on the materialistic world, rather than the spiritual world. As a result, their faith become more superficial and does not grow in their Christian lives. Attending church becomes self-centered, business-like, and social rather than spiritual. And thus when the conditions are not right, they either abandon church or create great divisions.

The bible also talks about conflicts within a community. It is a sin to disrupt the unity of the church. Paul asked “Is Christ divided?” (1 Cor 1:13). Inadequate knowledge of the bible causes misunderstandings of the church, and thus to many conflicts and divisions. However the bible say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7). This verse lets us know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bible.

My current church started with 8 people in 1983. In 1985, their congregation came to be called “Korean Church of New England.” After long efforts and growth, they built up a church building and came to be called “Boston Evangelical Church.” However in the year 2000, the church became divided from conflicts, and by 2013, it was reduced to a mere 15 members. The conflict remained even among those remaining and the younger generation had all left.

These results were products of inadequate and misguided teachings of the bible and the church. Conflicts rose out of misunderstandings of the various positions of church and the desire for “higher” positions led to its decline. Some ended up having negatives views of the church. To resolve a church conflict, it requires people to forgive others for the long held grudges and be willing to work together. That is why bible study and discipleship in small groups can help resolve the issue of conflicts and help overcome them.

The world “education” has the meaning “to guide forward” and derives from the latin word “educare.” Education is not to gain a useful skill or obtain new information, but to go try something new. Thus education incorporates all the areas of spiritual self

and actions. Paul say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 3:16)

Bible study and discipleship is change the whole atmosphere of the church.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all having renewed views of the church. The rumors that “Boston Evangelical Church” is a dying church is now changing. Some members who’ve left long time ago have returned to have fellowship together. In 1 year, the member count has almost doubled, and financially it has gotten around 30% better. The members have also matured first looking at themselves in a conflict before blaming others. The negative views of the church have changed to positive, and the members are taking initiatives to let it be known. Through small group, they share about their spiritual lives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pray. It can be concluded that bible study and small group can have positive influence in the church.

목 차

Ⅰ. 연구 대상과 범위

1. 교회의 정의와 갈등 요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원하든 원치 않든 구성원들의 서로의 삶을 공유되는 "공동체" 이다.[1]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라는 말은 '주님의 또는 "주님께 속한' 우리가 다루는 현실이 단지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의 기원은 신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그 운명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2] 교회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의 제자로서 살도록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3] 교회에 해당되는 다른 말로 종종 '코이노니아'(*koinonia*)가 사용되고 있다. 헬라어인 이 말은 공동체, 교제, 연합 그리고 함께 소속된다는 사상을 강조한다.[4]

성경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

1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서울: 분도출판사, 1989), 88.

2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개론,* 최봉기 역(서울: 요단출판사, 2006), 118-119.

3 Ibid., 118.

4 Ibid., 120.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격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communication), 친교 하는(koinonia) 영적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된 친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하다.

하나님과 연관된 인간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이미지라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것을 온전한 코이노니아 하나님이라 부른다. 즉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온전히 하나된 친교 속에 존재한다. 곧 코이노니아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영성이 아니고 코이노니아의 속성을 포함하는 영성으로 창조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다. 인간 서로간에도 하나되는 친교를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다.[5] 이렇게 창조 받은 인간들이 상호간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실재인 것이다.[6]

또 "공동체" 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7]란 결코 단순히 구체적인 모임과는 동떨어진 고도의 추상적 조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단체임을 강조한다.

---

[5] 이강천, *행복한 교회 성장의 열쇠*(경기: 푸른 초장, 2009), 13-16.

[6]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124.

[7] "에클레시아" 는 실지로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에클레시아란 결코 아무런 상호 관계없이 고립 자족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하나의 포괄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임을 밝혀준다.[8] 이와 같이 위의 헬라어 단어들에서 파생된 의미에서의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상호간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공동체라는 말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 받은 자, 구원을 경험한 자,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런 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역사의 의미를 성취하는 도중에 있다.[9] 그 구성원들은 옳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이다.[10] 신약 성서에는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하는 경향은 없다.[11]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도리어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뱉어 버릴 미지근한 물이 될지도 모른다(계3:16). 그러므로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롬2:5; 14:10; 고전3:13; 4:5; 고후5:10).[12]

이러한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구성원간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

[8] Hans Küng, *교회란*, 88-89.

[9]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60.

[10] Ibid.

[11]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서울: 컨콜디아사, 1992), 306.

[12] Ibid.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는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특히 이민 교회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삶의 현상에서 부딪쳐 왔던 감정들이 쉽게 표출되는 장소가 되어 더욱 커다란 갈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갈등은 종종 다른 조직이나 단체들이 경험하는 갈등보다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교회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길 때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기 과신의 믿음과 자기 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의 동기를 신앙적으로 불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심화되면 자기만 성경의 진리를 파수한다는 입장에 서 있고 상대방은 비성경적이고 죄악덩어리이고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단정해 버린다.[13]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론 스색(Ron Ssax) 박사는 "철저한 제자훈련의 뒷받침이 없이 이루어지는 급속한 교회 성장은 사단에게 트로이 목마를 제공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성경은 훈련의 목적과 방법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이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성경에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Matthew 18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의 심각한 사적인 공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14] Burgraff는 이것을 마태복음 5:23-24에서처럼 사랑을 깨뜨리는 것으로 분류한다.[15] 교회에서의

---

[13] 박혜성, *교회 내 갈등*(서울: 나침반, 2006), 12.

[14] 마태복음18:15-18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5] Laura Joann Preede, *Calling the Church to Purity: A Study of Church Discipline*(South Hamilton: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1992, 5), 76.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죄이며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하다[16]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훈련'의 의미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훈련은 제자에게 주어지는 조직적인 가르침을 말한다. 이 의미는 또한 어원(root) *discere* '배우는 것'과 *discipulus* '제자, 학생'이 파생한 *discipulus*, '가르침'의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17] 그러므로 그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18] 학습의 주체 또는 체계에 종속된 개인의 특성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훈련은 교회의 제자들의 개인적이고 공적인 행위들을 형성하도록 의도된 법과 지시의 형식적인 체계에 주어진 명칭이다.[19]

올바른 신앙 교육이나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다른 의견들이나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회자의 권위를 쉽게 거스르며 대항하는

Burgraff, David L. "Principles of Discipline in Matthew 18:15-17, Part 1: A Contextual Study." *Calvary Baptist Theological Journal 5* (1989): 2:1-29에서.. 재인용.

마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16] Laura Joann Preede, *Calling the Church to Purity*, 76.

[17] "Disciplin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Discipline(accessed Dec. 22, 2013).

[18] 예수님의 교훈과 훈련(practice)들을 통해 제자들의 특성들이 형성되었다.

[19] Lionrl M. Moriah, *The Thirteenth Discipline* (Eugene, Orge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1.

입장에 있으면서[20] 교회는 파당이 생기며 갈등이 야기된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마케팅 전문가 조지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요즈음 현대 미국 교인은 6명 중 1명이 종종 교회를 옮긴다." 고 발표 하였고, 또 어느 한인 교수 부부가 미국 한인 이민 교회의 교우들의 실태를 연구 조사한 결과는, "한인 교회 3명 중 1명이 매 3년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닌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학자 Paul Tillich는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 "교회 안에서 잠자는 교인은 60%, 눈 뜨고 앉아 있는 교인은 30%, 눈 뜨고 움직이는 교인은 10%인데, 그 중에 10%의 교인들이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21]

2. 보스톤 성결 교회의 역사

1)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역사적 배경

뉴 잉글랜드(New England)는 미합중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메인(Maine), 뉴헴프셔(New Hampshire), 버몬트(Vermont),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코네티컷(Connecticut) 6개주를 포함한 지역을

---

[20] 박해성, *갈등*, Ibid., 22.

[21] 안재도, *이민 광야와 코리안 아메리칸*(서울: 쿰란출판사, 2001), 283.

말한다.[22] '뉴잉글랜드'라는 이름은 1614년 탐험가 존 스미스(John Smith)선장에 의해 붙여졌다. 그가 이 지역을 당시 영국 플러머스의 버지니아 식민지 회사의 위탁을 받고 탐사한 후 다시 영국으로 많은 생선과 가죽들을 가지고 돌아간 후 작성한 보고서 'A Description of New England'에서 영국의 해안과 흡사하다고 기록한 이후로 '뉴잉글랜드'라고 불리기 시작했다.[23]

일반적인 신세계 이민 모델(New World Migration model)에 따르면, Eurasia로부터 Americas로의 이민자들은 Beringia(베링)을 경유하여 일어났다. 베링을 경유한 초기의 이민은 적어도 13,500년 전에 일어났다. 이런 초기 Paleo-Indian들은 문화적으로 수백 개의 뚜렷한 국가와 부족들로 다양화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Americas의 자생한 사람들의 구전에 따르면 그들은 그 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다.

"Indian"이란 용어의 이용은 Asia를 찾으면서 East Indies에 도착했던 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시작되었다. 후에, Americas은 오늘날 아직도 Caribbean를 언급하여 사용된 이름인 "West Indies"으로 알려졌다. "Indies"와 "Indian"의 이름들의 사용은 Americas의 토착인들을 위한 일종의 인종 또는 문화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다. 만들어지자 통합된 "Indian"은 법, 종교와 정치로 체계화되었다. "Indians"의 단일 사상은 원래 타고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지

---

[22] 뉴잉글랜드 미주 한인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회, *뉴잉글랜드 한인사*(서울: 선학사, 2004), 3. 이후에는 저자를 '백주년 기념 사업회'라 함.

[23] 백주년 기념 사업회, *뉴잉글랜드,* Ibid.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세기 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성을 받아들였다. 'Indian"
용어는 Aleuts, Inuit 또는 Yupik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Americas의 타고난 사람들이다.[24]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이 최초로 뉴잉글랜드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1만년 전이라고 한다. 이들은 보스톤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렵과 농경생활을 영위해 왔다.[25] 미국인은 원주민인 인디언을 빼놓는다면 모두가
16세기 이후에 건너온 이민지와 그 후예들이다. 미국역사는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begins in Europe'이라고 할 만큼 그 역사적 뿌리를 유럽에 두고
있다. 미합중국 독립당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원주민인 인디언과 유럽에서 이주해
온 백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송된 흑인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북미 대륙 최초의 영국 식민지는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James
Town)이다. 이 식민지는 1607년 4월 존 스미스(580-1631)가 인솔한 영국
최초의 이주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26]

Plymouth, Massachusetts에 상륙한 청교도들보다 13년 앞선 1607년에
Vriginia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영국 식민지인 James Town은 국가와 세계를
형성하는데 도왔던 일련의 문화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런 초기 Virginia

---

[24] "Indigenous peoples of the Americas,"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Indigenous_peoples_of_the_Americas(accessed Dec. 22, 2013).

[25] 백주년 기념 사업회, *뉴잉글랜드*, Ibid., 4.

[26] Ibid., 5.

사람들의 정부, 언어, 관습들, 신념들과 열망들이 오늘날 미국 유산의 전부이다.

식민지는 신규 개발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원했던 투자자인 영국 Virginia 회사에 의해 후원되었다. James 1세에 의해 1607년에 형성된 회사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해외 팽창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양에 대한 북서쪽을 향한 길을 찾으려 하고, Virginia 인디언들을 영국 국교로 바꾸려는 영국 정책을 후원하였다.[27]

이들 다음으로 온 영국의 이민선은 풍랑에 밀려 항로를 잘못 잡아 버지니아로 가지 못하고 1620년 12월 21일에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에 기착하여 식민지를 개설하였다. 이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이다. 이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맺은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ntract)은 후에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이 건설한 플리머스 식민지는 1640년 메사추세츠만 식민지에 흡수되어 통합되고 말았다.

미국 역사의 시발점에서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든 이들은 10년 후에 보스톤에 온 청교도들이었다.[28] 보스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여 온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1630년에 세워졌다. 1630년 3월 29일에 700명의 사람들을 태운 11개의 배들이 영국에서 매사추세츠로 항해했다. 그들은 존 윈클럽(1588-1649)에 의해 인도되었다. 첫 번째 사람들이 Charlestown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물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 Trimountaine라 불리우는 반도로 이동하였다. 새로운 정착민들이 온 후에 보스톤이라 불리웠다.[29]

---

[27] Jamestown-Yorktown Foundation, "A Brief History of Jamestown" http://www.historyisfun.org/history-jamestown.htm(accessed Jan. 15. 2014).

[28] 백주년 기념 사업회, *뉴잉글랜드*, Ibid., 6.

[29] Tim Lambert, "A Short History of Boston, Massachusetts, USA"

1630년 4월 존 위스롭(John Winthrop, 1588-1649)이 뉴잉글랜드 식민지회사의 초대 총독에 임명되어 13척의 배에 천 오백 명의 청교도 남녀들을 태우고 샤무(Shawmut)에 상륙하였다. 바로 지금의 보스톤이다. 역사가들은 뉴잉글랜드를 건설한 원동력을 독실한 신앙심과 근면 정직한 근로정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높은 교육열에 둔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가치체계를 청교도 정신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미국 역사가 시작된 이래 미국의 문화를 지배해 온 본고장으로 청교도들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곳이다.[30]

이와 같이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문화 및 역사의 출발지이자 중요한 거점으로서 발전한 380년의 역사를 가진 주다. 1629년 최초의 식민지 기지를 만든 상륙지점(현재의 플리머스)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보스톤의 남쪽 구릉지대를 인디언들이 '매사추세츠' 즉 '거대한 언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이 인디언 말이 주의 이름이 되었다.[31]

2) 뉴잉글랜드와 한인 이민 역사

뉴잉글랜드 이민 역사는 유학생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보스톤 한인 사회는 한인학생회에서 주관하였다. 한인회 명부에 의하면 1953년에 50명, 1956-1957년에 173명이었다. 1673년에 신 이민법이 재정된 후 뉴잉글랜드 한인의

---

www.localhistories.org/bostonus.html(accessed Jan. 15. 2014).

[30] 백주년 기념 사업회, 뉴잉글랜드, Ibid., 7.

[31] Ibid., 16-17.

증가추세(미국 상무성 통계국의 인구조사)를 보면 1970년에 뉴잉글랜드 거주 한인 인구는 1,673명이다.[32] 1980년에 뉴잉글랜드 거주 한인 인구는 8,600명, 2000년에 29,339명으로 나타났다.

3) 보스톤 성결 교회의 역사와 갈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한인 교회로는 1953년 추수감사절에 세워진 보스톤 한인 장로교회이다. 보스톤 성결 교회(Boston Evangelical Church)는 1983년 9월 18일 이종수 목사(미남침례교회 소속)와 함께 8명이 이학렬 장로(현 원로장로) 집에서 성경 공부로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 4월 14일에 홍성국 목사(기독교대한 성결교회)를 담임목사로 하여 Peabody North Shore Baptist Church에서 7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름을 "뉴잉글랜드 한인 교회"라 칭하였다.

1991년 7월 30일에 미국 남침례교회 교단을 탈퇴하고, 동년 10월 6일에 기독교 미주성결교회로 가입하였다. 1999년 1월 7일에 현 위치의 성전을 구입하여 교회 명칭을 "뉴잉글랜드 한인 교회"에서 "보스톤 성결 교회"로 바꾸었다. 교회는 보스톤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며 15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갈등을 겪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욕설과 몸싸움의 양상으로 커졌다. 이런 진통 속에서 당시 담임 목사가 떠나면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 가정들이 함께 교회를 떠났고, 이와 같은 교회의 갈등과 쇠퇴는

---

[32] Ibid., 62.

2013년 3월에는 마침내 장년 신자 15여명만이 예배에 참여하였다.[33]

교회가 상처를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상처 입은 심리 상태에서 생기는 그릇된 보상 방법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존중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이 무시된다고 생각하거나 소외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민 교회는 이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부딪치게 된다. 문화 충격,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타민족과의 마찰 등은 때때로 이민자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이민 오기 전에 가졌던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이민 생활을 겪으면서 자괴감으로 변해버리게 된다.

이민 교회는 복합 민족 사회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동질 집단이다.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는 이민 생활에서 상처 입은 그들의 자존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민 교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학력, 직업, 재산 등의 과시 장소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내에 파당을 형성하게 하고, 대립과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부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마찰을 겪게 된다. 이민 교회는 특성상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여기기 보다는 친목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친교의 공동체로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목회자와 갈등을 겪게 되게 하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파당이 형성이 되고 교인들 상호간에 대립을 하게 한다.

---

[33] 이들 대부분은 본 교회 출석 15~20년 이상으로 나이가 60세 이상.

그리고 종종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거나 교인들이 떠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인들의 그릇된 신앙 양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다. 한인 1세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곳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힘든 이민 생활은 그들을 자신들의 영적 상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 그 결과 신앙인의 형식은 있으나 참된 신앙인 모습은 갖지 못하게 된다. 교회 출석의 목적이 영적 관심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관계와 친목, 비즈니스에 둔다. 이러한 잘못된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 교회를 쉽게 떠나거나 교회는 주도권 분쟁에 휩싸여 갈등을 겪으며 분열로 나아간다.

보스톤 성결 교회의 문제는 론 스색 박사의 지적처럼 올바른 성경 교육의 부족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바른 성경 지식이 없는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호4:6)라는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교육"(education)이란 단어는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educare"에서 온 것이다. 교육은 성장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유용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자아의 확장이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 존재와 행위의 모든 영역을 포함 한다.[34]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라 했다. 인간 존재와 신앙 행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은 교회 구성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변화와 교회 갈등의 극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 교육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친교를 통하여 교회 구성원간의 사귐을 증진시키며, 신앙의 체험과 깨달음을 서로 나눔으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교회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화된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할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먼저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정의와 역할을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작업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체 구조의 지체들로서 뗄 수 없는 관계 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의식은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상호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로의 신앙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이다.

---

[34]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71.

Ⅱ 교회 공동체의 역할

1. 교회와 평화

오늘날 종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여 나타내는 표시들 중의 하나이다. 종교는 한 그룹을 외부인들(outsiders)과 구별 짓게 한다. 종교의 이런 기능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표시는 무엇인가? J. Moltmann은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고전14:33)"[35]라고 했다. 평화는 성서적 복음 선포의 중심주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래서 '평화'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독교인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 건설자이며 교회는 평화수립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36]

예수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6:8)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셨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 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은

---

[35] Jűrgen Moltman, *성령의 능력,* 416.

[36] 유석성, *현대사회의 사회윤리*(부천: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97), 7. "정의·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세계 대회 자료집*(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 1990)에서 재인용.

화해의 사명을 요청한다.[37]

산상수훈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에게 '원수 사랑'을 뜻했다.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우리 자신이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 모두를 제거하거나 '원수관계'를 극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길이 바로 평화를 세우는 자들의 삶의 방법이다.

원수 사랑의 방법은 첫째로 원수관계에 응대하지 않고 머리를 위로 들어 새로운 공생을 창조하고, 둘째로 나와 다른 '타자'를 나와 동일한 인권과 존엄성을 지닌 자로 인식하며, 셋째로 원수관계가 일어난 동기를 인식하여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다. Moltmann 은 "원수 사랑은 자신의 생명과 자기에게 속한 생명들에 대한 책임은 물론, 원수들과 그들에게 속한 생명들에 대한 책임도 짊어질 것을 요청한다."며 "예수의 원수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 라고 역설했다.[38]

주님께서는 불화 한가운데서의 평화를 이루셨다. 이것은 원수 관계를 끝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화해' 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 원수 관계를 소멸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

[37] Raymond G. Helmick. SJ., "What is Church Responsible to do about Conflicts?" *Overcoming Violence*(Waltham, MA: Boston Theological Institute, 2010), 7.

[38] "몰트만 박사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 *크리스챤투데이*, 2012. 5. 5,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5491(accessed Nov. 8. 2013).

선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39]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4)"라고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40]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다(고후5:18-20).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에 따르는 기독교인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부여된다.[41]

기독교 복음에는 화해에 대한 여러 명령들이 있다. 아마도 마5:23-24절 보다 더 강력한 구절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 의식은 기다릴 수 있으나 화해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42]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그는 "악행을 행하면서 마음으로 멀리 소외되어

---

[39] Jürgen Moltmann, 곽혜원 역, *희망의 윤리*(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2), 416.

[40] 로마서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4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마20:28)라고 하셨다.

[42] Raymond G. Helmick, SJ. " Religion and Conflict as Global Concern," *Overcoming Violence*, 169.

절대적인" 상태에 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에 있으며(골1:21) 하나님의 원수이다.(롬11:28)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끝나버렸으며, 그 대신에 "화평"이라는 객관적 상태가 들어섰다.[43]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롬 5:1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고후 5:19).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화해' 되었다. "그 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골1:20) 이러한 '모든 만물' 의 화해와 함께 모든 만물의 영광의 미래는 앞당겨 선취되는데, 이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 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벧후 3:13, 계21:1) 이와 함께 우주적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땅은 그의 원천을 훨씬 압도하는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이 땅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다.[44]

이러한 화해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부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

[43] G.E. Wright, R.H. Fuller, *하나님의 구원 행동,* 김득중·이군호 역(서울: 컨콜디아사, 1991), 311.

[44]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219.

Moltman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적인 질서들(the ecclesiastical orders of Christ’s church)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평화 질서(God’s eschatological order of peace)의 역사적인 구체화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삶과 자유를 위한 이들의 상호 섬김으로 구현될 것이다”라고 한다.[45] 화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인 상호 섬김를 위한 조건이 된다. 화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종말론적 질서이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 공동체이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삶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들은 그때 그때의 법적 공동체의 질서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따르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평화의 《원리》들을 따른다. 그리스도 교회의 교회적인 질서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평화의 《질서》의 역사적인 표현들이다.[46]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들은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순종했다. 화해를 사명으로 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당시 로마제국의 현실적인 가치인 팍스 로마나(Pax Romana)와 정면으로 충돌했다.[47] 그리스도가 실현한 이러한 종말론적인 표현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 불리우는 당시의 로마제국의 지배체제하에 있어서의 평화(행 24:3) 같은 외양의 평화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특정의 삶들 및

---

[45]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179. 몰트만은 마가복음 10:42-45을 인용한다.

[46]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417.

[47] 김동진, “평화! 우리의 선교적 사명,” *세계와 선교 제215호*(서울: 한신대학교, 2013. 6. 1), 38.

민족이 억압되고 있는 곳에 참된 평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48] 그리스도의 평화는 당시의 세상적인 원칙과 사상에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에 대한 성서의 정의를 보면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어 샬롬(Shalom)를 사용한다. 이 평화 사상은 첫째, 샬롬은 야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야웨는 평화의 시작이며 근원이며 완성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의 평화의 문을 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 둘째, 평화는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본래 히브리어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be sound, complete, full)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공동체의 샬롬 곧 공동체의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외되거나 빈 부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49] 이와 같이 샬롬은 작은 공동체의 온전함(Heilsein), 곧 모든 면에서의 안녕(Wohl)을 의미하였다. 본래 이 개념은 결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던 것이 아니었고 철저히 정상적인 일상적 삶을 표현하였다.[50] 따라서 다툼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한 요소로서 이해되었으며, 다툼이 샬롬의 반대개념은 아니었다.[51]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단순한 축복의 소원을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의 영역으로 상대방을

---

[48] 김정운, "샬롬의 뜻 다섯 가지," http://blog.daum.net/avsol/452(accessed Jan. 19. 2014).

[49] 김동진, *세계와 선교*, 38.

[50] 윤응진, *기독교 평화 교육론*(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174.

[51] Ibid.

맞아들임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면, 사사기 19:20[52]을『표준새번역』에서는 "잘 오셨소"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부버(M. Buber)는 "당신에게 평화를!"(Friede dir) 로 번역한다. 이 인사는 나그네에게 안전과 휴식,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굶주림, 목마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맞아들임을 의미한다.[53] 이렇게 샬롬은 평화와 환대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평화는 관계적 개념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서 화해로 인도되고, 동시에,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뿐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평화도 주어진 것이다.(롬 5:1-11, 고전14:33, 골1:20, 엡2:14-17, 약3:18)[54]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이 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상호 친교 속에서 지낼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창1:26) Johannes C. Hoekendijk(요하네스 호켄다이크)는 샬롬은 인간의 내적 본질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자 인간관계의 사건이고, 샬롬은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55]

넷째, 구약의 평화사상은 미래 지향적 기다림이며, 메시야적인 기다림은 평화에

---

[52]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되지요."

[53] 윤용진, *기독교 평화*, 173.

[54] 김정운, "샬롬의 뜻 다섯 가지" http://blog.daum.net/avsol/452(accessed Jan. 19. 2014).

[55] 이동주, "로잔언약의 신학적 근거(2)," *크리스천투데이*, 2013.3.19.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170(accessed Feb. 3. 2014).

대한 종말론적 희망이다(사2:2-4).[56] Moltman에 의하면 신학에는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 즉 미래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나님은 세계 안에 있거나 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앞에 있는 하나님, 즉 희망의 하나님(롬 15:13)이기 때문이다. 그는 밤중의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출13:21)이요, "존재의 본질로서의 미래"(블로흐)를 가진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미래의 약속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종말론은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미래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에서 출발해서 그 미래,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힘을 알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야말로 종말론적 정신과 유토피아적 정신의 토대요, 그 시금석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늘의 영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본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미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땅의 희망이다. 희망은 고난 중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고난에 맞선 하나님의 약속의 저항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둔 사람은 더 이상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현실 때문에 고난 받고 현실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상과의 불화를 의미한다.[57]

또 "샬롬"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eirene, Ειρήνε)"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에이레네"의 경우도 샬롬과 같이 인사말로도 사용되었다.(눅10:5-6, 24:36, 살전1:1, 벧전1:2, 5:1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

[56] 유석성, *현대 사회,* Ibid., 15-17.

[57] 이신건,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대한 연구," http://sgti.kehc.org/bookreview/19.htm,

평안할지어다(Eiρἡνε)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눅10:5-6)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에 사용되었듯이, "에이레네" 역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평안을 기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전1:3, 고후1:2, 갈1:3, 벧후 1:2, 요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전1:3)[58]

Eirene는 고전적 의미로 전쟁에서의 잠정적인 휴전으로 인한 평화나 전쟁과 대조되는 평화를 의미한다. 70인역(Septuagint)의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안녕(well-being)"을 의미하는 "shalom"을 나타내는 단어로 선택했다. Shalom이나 Eirene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결코 "한 조각의 평화'가 아니라 의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하는 굳건한 평화이다. 신약 성서에서의 평화는 하나님은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고전14:33) 공동체 삶에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의 평화를 포함한다.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이다.(엡2:14)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계속되는 구원이다.(빌4:7; 히13:20-21) 그러나 에이레네는 쉽게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얻는 것이다.(히12:14)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그러한 투쟁의 이야기이다.(tension 16)

신약성서에서 평화라는 말로 사용하는 에이레네(eirene)는 본래 세속 그리스어로 전쟁의 반대 상태 내지 종식을 뜻한다. 평화는 질서와 법이 유지되는

---

[58] 김정운, "샬롬의 뜻 다섯 가지," http://blog.daum.net/avsol/452(accessed Jan. 19. 2014).

상태이며 여기에서 복지가 비롯된다.[59]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 용법상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1)안식의 느낌으로서의 평화, (2)하나님과의 화해의 상태로서의 평화, (3)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으로서의 평화이다. 이 중 마지막 의미가 기본적인 것이다.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으로서의 에이레네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특별히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구약성경의 샬롬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적 사건으로 온다. 히 13:20은 이것을 "평강의 하나님"과 "양의 큰 목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자"를 동일시 함으로써 넌지시 암시한다.[60] “에이레네는 바로 '영적 번영'이 아니라 전인간, 곧 영혼과 몸의 구원이다. 동일한 의미는 히 13:20이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이레네는 카리스(은혜)의 결과인 영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구원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7:2은 그리스도의 전형으로서의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한다.[61] 이 구원은 평화의 복음으로 선포된다.(엡 6:15 참조: 행 10:36 엡 2:17)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다.(요 14:27) 세상은 오직 '샬롬'을 원하며, 그리스도는 자기가 확보한 구원을 주신다.[62]

기독교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요, 평화의

---

[59] 유석성, *현대 사회*, 18.

[60] 히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61] 히7: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62] “에이레네-평화/ 성경 원어의 의미,” http://blog.daum.net/youl0901/16505369(accessed Feb. 3. 2014).

왕으로서 왔다.(히7:5) 신약성서의 평화는 화해와 연관된다. 그리스도는 화해의 사건이다.(엡2:14)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약성서에 나타날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이며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이다.(계21:1-4).[63]

Bonhoeffer은 평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에게 평화는 진리와 정의의 실천이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계명"이라 하여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복종을 말한다. Moltman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평화를 우선적인 조건이며 이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한다.[64] 유석성 교수는 "디지털 성결" 에서 평화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였다.

> 오늘날의 평화연구에서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사용한다. 소극적 개념에서 평화란 전쟁의 부재, 곧 전쟁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평화는 폭력, 궁핍, 부자유, 불안이 없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사회정의가 행해지고 있는 상태, 사회정의의 현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삶을 위해 능력과 수단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로 평화는 규정된다.[65]

Bonhoeffer는 평화 설교[66]에서 평화사상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Gebot Gottes)으로서의 평화를 이해한다.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

[63] 유석성, *현대 사회*, 19.

[64] "디지탈성결," http://www.kehcnews.co.kr, 2012. 5. 9.

[65] "디지탈성결," http://www.kehcnews.co.kr, 2013. 9. 12.

[66] 본회퍼가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 1933년 8월 28일 아침예배시간에 "교회와 민중들의 세계" 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

부름은 토론이 아니라 엄격한 계명을 뜻하며 이 계명은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화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평화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말한다.[67] 따라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신학의 과제이다. Bonhoeffer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본질적으로 신앙과 순종 안에서 성립된다.[68]

둘째, Bonhoeffer의 평화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현존 때문에 가능하다. 평화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의무는 이 그리스도의 현존(Präsenz Christi)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상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나심으로써 주어진 계명[69]이기 때문이다. Bonhoeffer는 여기에서도 또 한번 평화에 대한 기독론적 교회론적 근거를 말한다. 평화는 이상주의나 휴머니즘에 의해 기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적 교회론에 기초되어 있다. 평화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와 오직 전세계를 생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70]

샬롬의 파생어인 동사 "실람"이라는 단어가 "지불하다, 빚을 청산하다"는 뜻이다. 즉 그와 같이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곧 샬롬, 완전함의 개념인데,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즉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 되어진

---

67 유석성, *현대 사회*, 70

68 Ibid.

69 마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70 유석성, *현대 사회*, Ibid., 71.

것이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샬롬)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사9:6)[71] 평화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셋째, 평화는 신앙과 순종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72] Bonhoeffer는 평화를 민족중심적인 정치•경제적•이데올로기의 방법이 아니라 신학적•신앙적 방법으로 이룰 것을 촉구한 것이다. Bonhoeffer는 여기에서 평화는 하나의 위대한 모험(eine groβe Wagnis)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본회퍼는 무기와 군비확장, 안전보장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비폭력적 방법을 통하여 평화를 추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73]

Bonhoeffer의 평화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es)에 근거한 제자직의 평화론이다. Bonhoeffer는 제자직에로 부름은 예수의 수난선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수의 십자가의 종합적 표현은 수난과 버림받음을 뜻한다.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결합이요, 십자가를 의미한다. 수난을 위한 제자직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절대적 비폭력을 통한 비폭력 저항의 평화주의이다. 그의 평화주의는

---

[71] 김정운, "샬롬의 뜻 다섯 가지," http://blog.daum.net/avsol/452(accessed Jan. 19. 2014).

[72] 유석성, *현대 사회*, 72

[73]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72.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동적 저항이다.[74]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은 공동체 내의 치명적인 암이 아니라 삶의 한 요소로서 이해된다. 인간의 공동체에는 갈등이 늘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한 갈등은 계속 남아있어야만 한다. 다툼은 형제들 간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형제 됨'이 비성서적인 방식으로 이상화되어 갈등이 무조건적 배제된 상태를 평화 상태로 착각한다. 평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은 갈등의 회피가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인 것이다. 형제간의 다툼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책임성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평화의 이름으로 갈등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성서적 근거를 상실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갈등들의 객관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75]

2. 교회와 해방

불의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굴욕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고달프고 무거운 짐 진 백성들의 침묵은 하나님과 그의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을 소리 없이 표현한다.[76] 이 수고는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해결된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해방된 자의 공동체요, 회개해 오는 자의 공동체요, 희망하는 자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전하는

---

[74] Ibid., 76-77.

[75] 윤용진, *기독교 평화*, 175

[76]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317.

신약 성서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선포가 있다.[77]

Moltman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해방을 세 부분으로 말하고 있다. 첫째 "죄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사명과 순종의 완성이다. 그는 배척당한 자로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의 자기 헌신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희생당한 자들》에게 가져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의 용서》를 통하여 산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로의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을 통하여 새로운 생과 새로운 의로 다시 태어났다.[78]

둘째는 "권세의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79] 하나님 외에 나의 인생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즉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를 절대적으로 만들고 헌신적인 인생의 중심에 놓은 것이 우상숭배이다.[80]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함을 이러한 우상을 통하여 극복하려 한다. 사람들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우상은 물질과 권세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권세를 깨닫고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신약 성서에서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우리는 "자유로의 부름"을 받았고 (갈5:13)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였다"(갈5:1)고 선언한다. 또 "주의 영이

[77]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32.

[78] Ibid., 134-136.

[79] Ibid., 138.

[80] Timothy J. Keller, *거짓 신들의 세상,* 이미정 역(서울: 베가북스, 2012), 24.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후3:17)고 선언한다.[81]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였다.(엡1:21,22)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공동체로서 그의 헌신과 상실된 자들과 그와의 연대성, 그리고 그의 공적인 고난 속에 포함된다. "그의 고난은 이런 관점에서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함께 고난 받음 Compassio"으로 이끌어[82]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와 무력한 자와 멸시 받은 자와 무가치한 자들을 교회에로 모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모든 교회가 확립해야 할 "구원사적 의미"를 가진다(사40:5).

또 "교회는 《노예의 모습》을 가졌다. 그것은《하나님의 민중 Plebs Gottes》이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민중 ὀχλος<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83] 교회가 《민중을 위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모습은 귀족주의적 태도가 거부될 때 진정으로 세상의 우상을 극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부터 해방"이다. 예수는 정죄 받은 하나님 모독자와 선동자로서 뿐 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그의 민족의 율법 이해와 로마인의 권력 정치에 의하여 로마인의 권력 정치에 의하여 뿐 아니고, 그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신 분에 의하여 죽었다. 이러한 그의

---

[81] Acery Dulles, *A Church to Believe In*(New York: Crossroad, 1982), 68.

[82]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42. H. Urs von Balthasar, Mysterium Paschale, 220에서 재인용. 고전1:26-31

[83] Ibid., 143. H. de Lubac, Betrachtung űber die Kirche, 211ff에서 재인용.

하나님께 버림받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자기 몸에 짊어졌다. 가까워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소식의 빛에서 십자가에서의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의 파송 받은 일이 종말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의 빛에서 보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이끌었다. 아버지는 "자기의 친 아들"을 보호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넘겨주셨다."(롬8:31ff)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버림받은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고, 희망 없는 자의 도피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84]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또 버림 당하심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뜻에 대한 복종이 만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 근성이다. 순종이 사랑으로 행해지는 한도까지만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강요될 수 없는 영적 행동이다.[85]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을 획득하게 된 하나님 없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죄인이 되었던 자를 통하여 그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들은 예수의 대리적인 저주의 죽음을 통하여 축복받고 축복된

---

[84] Ibid., 144-145.

[85] Acery Dulles, *A Church to Believe In,* 70.

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의하여 《세계》를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새로운 생이 동시에 세상에 대한 화해에 기여하게 된다.[86]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의》화해이며, 세계의 화해를 위해 바치는 교회 자체의 헌신이다.[87]

이와 같이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88] 이 정의는 억압과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과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권위와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부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이다.[89] 이것은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심판장으로부터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나타난다.[90]

---

[86]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47.

[87] Ibid., 149.

[88] 눅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89] 시68: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90] 마25:31-46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그러나 현대 교회는 가난한 자의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자의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 안의 제도는 하나의 권력 구조로 나타나 여러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민 교회에는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자기 인정의 요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91]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공동체는 가난한 자, 작은 자, 여자들, 그리고 인종차별을 받는 자들을 해방하여 그들의 인권을 세워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지배에서 해방된 영역 안에서 동료자 정신으로 맺어진 인격적 공동체라는 행복 된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게 한다. 교회에서의 해방의 목적은 지상적 지배 세력 그 자체의 전복이 아니고, 물론 권력 없는 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배나 예속의 체제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주인의 종이거나 어떤 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이다.[92] 그런데 이 자유가 개별적인 해방 속에서 선취된다면, 이 해방은 개인의 특권을 위한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타자를 위한 해방의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91]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92]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63.

활동으로서만 정당화된다.[93]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참되고 헌신적인 관계로 부른다.(요1:7; 갈2:9; 고전12:26)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나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 한다. 서로에 대해 헌신하지 않는다. 삶은 바쁘고, 갈등이 생기고, 자주 이동한다. 우리에게 온라인에서의 관계와 친교 네트워크가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보다 더욱 현실적이다. 이러한 관계(부족한 관계)는 서로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완전히 잊게 한다.[94] 이러한 현상은 타자를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타자를 이용하려는 구조, 즉 지배 구조의 현상이 나타난다.

왜 지배 구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배와 예속의 구조는 죄의 결과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하였다. 이 자아상은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낳게 하였다. 이런 구조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사람의 감정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공통된 결과 중의 하나가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95]이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으며 자신을 부적응자로 여겨 열등감을 가지거나[96] 또는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 하려 하고,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애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가

---

[93] Ibid., 287.

[94] Ken Sande, Redeeming Church Conflicts(Grand Rapid, Michigan: Baker Books, 2012), 124.

[95]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서울: 두란노, 1993), 65.

[96] Ibid., 22-23.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97]

이 욕구가 교회에서 잘못된 계급과 권위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책임과 헌신을 하도록 주어진 교회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 되어 버리고 권위 의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게 된다. 그리스도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생긴 수직 구조는 교회 안에 계급과 권위 의식을 만들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지시하고 지배하려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중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다. 이 세상은 지배와 억압으로 그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섬김의 길을 보이심으로[98] 무엇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임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증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정의와 자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나 억압, 소외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혁명적인 자유(radical liberation)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죄와 그 열매인 이기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불의와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99]

---

[97] Ibid., 93.

[98]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50.

[99] Gustavo Gutl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New York: Orbis Books, 2002), 103.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이다.[100] 이사야서 61장 1절[101]은 복음을 주의 영으로 오시고 자유와 구원과 평화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메시아적 예언자로서 인격화한다. 복음은 한계가 없고 종말이 없이 존재할 하나님의 지배를 말한다. 그것은 인간학적으로 의와 친교와 평화에 대한 구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말의 상대자는 갇힌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희망을 잃은 자들이다. 어쨌든 이사야서 52장에는 이스라엘의 갇힌 자의 해방이 중심적인 관심사인 것 같다.[102] 이렇게 복음은 오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방하는 말씀이다. 오고 있는 그 나라가 보편적이듯이 복음은 인간의 해방을 보편적인 화제로 삼는다. 복음은 영혼과 몸, 개인과 사회적 상태,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제도들을 폐쇄성, 독선, 불경하고 비인간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 그것은 들음과 믿음을 위한 언어와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해방자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그의 나라를 통고하고 동시에 죄와 율법과 죽음에의 속박들을 해제한다.[10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사셨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관계의 기준이다. 그는 스스로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가장 낮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탄생을 알리셨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

---

[100]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10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61:1)

[102]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22.

[103] Ibid., 327.

병든 자들,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로서 사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권위와 지배 구조를 책망하셨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다.[104]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증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낮아짐, 평등, 함께 함이 있다. 차별, 소외, 무시, 억압과 지배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격과는 상반되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교회에 권위, 계급과 지배 의식 또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은 높임을 받은 자와 낮아지신 자의 현재하심에 동시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가 영광으로 나타남에서부터 고난의 역사의 종결과 해방의 역사의 완성을 기대한다.[105]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을 선포한다.

예수의 선포와 활동은 전적으로 복음의 표지 안에 선다. 그는 <그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설교하였고, 갇힌 자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자유에로 불러들였다. 이러한 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신 정의이다.

Gerhard von Rad에 따르면 정의(justice)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동물,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표준이다.[106] 이 정의는

---

[104] 눅11:20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05]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97.

[106] Letty M. Russell, *Church in the Round*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17.

평등이며 함께 함이며 해방이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죄와 그 결과들인 약탈, 불의,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에 그의 정의와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107]

예수께서는 이 정의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자유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하는[108]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 공동체의 회중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부당한 권위와 지배를 배척하여 함께 하는 이민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교회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하기에 지위에 근거한 계급과 권위 의식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세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참여는 교회를 불의(anti-justice)하게 만드는 것이다. Howard Synder는 교회에서의 참여의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 교회에서의 권세는 지위, 계급 조직 또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봉사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직위, 신분, 계급 또는 명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으로서 어떻게 일하였는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109]

종으로의 섬김은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영적 성숙의 모습이며, 교회는 "나만(only me)"이 아니라 "함께'(together)"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숙될 것이다. 인간은 "분리"보다는 "연결(connection)"을,

---

107 Gustavo Gutlèrrez, *Liberation*, 103.

108 James H. Cone, *God of the Oppressed* (New York: Orbis Books, 1997), 8.

109 Howard Synder, *공동체*, 148.

“개인” 보다는 “관계” 에 대한 인식과 또한 인간이 상호 의존한다는 인식을 통하여 성숙한다.[110] 고 한다. 그러므로 “섬김” 과 “함께” 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천되는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빈곤이다. 공동체 내에서의 빈곤은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또 하나의 분리를 만들며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빈곤》은 경제적•사회적 빈곤과 육체적 빈곤으로부터 심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빈곤에까지 도달한다.[111] 이와 같이 《빈곤》을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종교적 개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노예화와 비인간화를 한 차원 이상에서 표현하는 말이다.[112]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형태는 예수의 복음에서는 보게 된 장님들, 해방된 갇힌 자, 행복하게 된 가난한 자, 또 치료받은 병자들의 친교,[113] 즉 《빈곤》에서 해방된 공동체이다.

정의는 해방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관계들과 연관된 정신 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114] 정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sutice)는 똑같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보복적

---

110 강남순, *현대여성신학*(서울: 기독교서회, 2002), 172.

111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22.

112 Ibid., 123.

113 Ibid., 125.

114 Everett L. Worthington Jr., *A Just Forgiveness*(Downers Grove, Illnois: IVP Books, 2009), 54.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가해자와 희생자 사이의 고통을 같게 하고 범죄자에 대한 대가가 형벌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복구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공동체로부터 범죄자를 제거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희생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잘못들에 대하여 평등하고 옳은 해결들을 찾는 것이다. 절차적 분배(Procedural Justice)는 갈등이나 가능성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다루기 위한 과정들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각 형태들은 책임성과 공평성이 연관되어 있다."[115]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들은 교회에서부터 바르게 행하여져야 한다.

마25:31-46에서는 예수를 인자와 세상 심판자로 나타난다.[116] 이 비유에 의하면 장차 올 세상의 심판자는 이미 세상 안에 감추어져 가장 작은 형제들,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헐벗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그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117] 장차 오실 세상의 심판자가 가장 작은 자들 속에 감추어서 현존하는 것은 동일시 Identification를 의미하지, 변화나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가장 작은 자들과의 동일시에 의한 per identifacationem 그의 현재화에서 동일성 안에 있는 세계 심판자의 현존, 즉 그의 재림 Parusie이 통고된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는 길을 통하여 영광 중에 있는 그의 동일성에 도달하게 된다. 반대로 그의 파루시아는 그가 가장 작은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의 친교 가운데서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다.[118]

---

115 Ibid., 58.

116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87.

117 Ibid., 188.

118 Ibid., 193.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나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옳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 받은 자, 구원을 경험한 자,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며 세상의 작은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 역사의 의미를 성취하는 도중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산다.

교회라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영은 이 친교이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리스도 이 인식 자체가 영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적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종말론적인 영의 창조이다. 이 의미에서 역사는 종말론으로 바뀌고 종말론은 역사로 바뀐다.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불리워진다.[119]

<성령의 경험>은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만드는 바그 경험들 속에 있다. 그것은 신앙의 경험이며,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의 역사의 경험은 신앙에서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경험이고 그를 통한 그를 보내신 분과의 친교의 경험이다. 그것은 신앙과 친교 안에 있는 삶의 새로움을 창조하자는 자유의 경험이다.[120] 교회는 피조물의 해방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에 참여한다. 영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나 교회가 있다. 참된 교회는 해방을 받은 자들의 찬미이다.[121]

---

[119] Ibid., 60.

[120] Ibid., 88.

[121] Ibid., 102

Ⅲ. 초대 교회 공동체

1. 치료(치유) 공동체

치유는 이 시대의 징조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선구자이다. 그리고 치유는 오늘날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인간들은 그의 이지력으로 논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로써 대처하신다.[12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니라”(출15:26)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라고 하였다. 치유는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초자연적 신적 능력으로서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고통 받는 인간 육체의 허약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접촉으로서, 모자라는 것이 없다.[123] 이와 같이 치유는 인간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임한다. 이런 신유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다.[124]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병을 고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 가지 조건이고 그것이

---

122 A. B. Simpson, “신유는 어떠한 것인가?” 활천 통권706호(서울: 활천사, 2012), 41.

123 Ibid., 38.

124 Ibid., 41.

채워질 때 병이 낫는다.[125]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126]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소생시키는 성령의 하시는 일이시다.[127]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두 가지 기본적인 일은 첫째는 성령을 통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버지와의 연합되는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삶을 위한 부정적인 것을 제압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성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구원하여) 하시는 것이다.[128]

이와 같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다.[129]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선은 병자, 가난한 자,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자, 말하자면 가해자가 아닌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향하셨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

[125] 김원호, *권리포기*(경기: 예수전도단, 2005), 31.

[126]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마4:23,24)

[127] A. B. Simpson, *활천 706호*, 40.
마12:28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28] Francis S. MacNut, *치유,* 변진석·변창욱 역(서울: 무실, 1994), 61.

[129] A. B. Simpson, "신유는 어떠한 것인가," 활천(서울: 활천사, 2012, 9), 40.

사53:5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벧전2:24)

마12:28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신 온정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에게 해당되었다. 예수는 '선한 자들'보다는, 오히려 병자들에게 해당되었다.[130]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지배에 순종하고 그의 희생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한 또 그만큼 그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새로운 생의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지배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해방을 그리스도의 지배에 의하여 친히 경험하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가 닿는 데까지 미치며, 축복의 선언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과 치료를 받은 병자와 해방된 갇힌 자들과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들로 구성된다. 그들의 새로운 자유는 세계를 새로 창조하는 영 안의 자유다.[131]그리고 이 영안의 자유는 육체의 건강함을 가져온다. 복음서에는 사탄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 안의 자유 뿐 아니라 육체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그 분의 치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으며,[132] 자신의 치유사역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말씀하셨다.[133] 즉

---

[130] Jürgen Moltmann, *희망의 윤리*, 321.

[131]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59.

[132] 눅4:16-21.

[133] 눅7:20-23.

예수님의 치유 행위들은 그 분의 메시지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메시지였다.[134]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나타내시는 표적이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하신 메시야이신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135] 예수님의 답변이 이사야 35장과 61장의 언어로 주의 깊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두 장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적 행동 이전에 나타나게 될 표적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는 그의 병 고침을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통치의 표적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136] 그러므로 예수의 치유 사역은 미래의 결정적 사건에 의해 시작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현재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뜻한다.[137]

치유는 예수의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다.[138] 이와 같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천이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몸소 그의 행동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Compassion, 연민)을 나타내 보이셨다.[139] 예수님의 이 사역을 초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전승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상

---

[134] Francis S. MacNut, *치유*, 65.

[135] 마11:2-5.

[136] G.E. Wright, R.H. Fuller, *하나님의 구원 행동,* 김득중·이군호 역(서울: 컨콜디아사, 1991), 253.

[137] Ibid., 254.

[138] Ibid., 135.

[139]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321.

여전히 이 치유의 사역이 요구되고 있다.

치유는 외적·내적 치유를 요구한다. 교회에는 외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여 심각하게 내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든지 살아가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혀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결혼 생활의 파탄, 실직, 정신적인 질환, 자식에 대한 실망, 직업에 대한 불만, 인생에 대한 의미의 혼란 등 이와 같은 것들은 치유 목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의 예이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고통과 자기들이 처한 어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교역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들의 관심과 활동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서적 육체적 생존에만 집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의 관심을 먼저 다루고 대처한 후에야 그들은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관심에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 상담은 그들의 완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불안과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140]

인간에 대한 히브리적 관점과 이해가 현대 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인격(whole individual)적인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여 감정(emotion)과 육체(body)가 정신(mind)과 영(spirit)에 많은 영향을

[140]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154.

미친다는 것이다.[141]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의 일체성(wholeness of man)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적인 면과 함께 심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또는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어 사람(전체적인 사람, 나누어지지 않은 존재)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헬라 사람들의 사상에서처럼 영(정신)과 몸(물질) 사이에 날카로운 이분설이 없다. 히브리적 기독교적 유산은 인간을 나누어지지 않은 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인간은 영과 육의 전체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땅의 관계가 놀랍게 합쳐진 합성 존재, 즉 합성 인간인 것이다. 이 인간의 일체성은 많은 병의 정신치료적 성격이나 그 밖의 인간경험에 빛을 던져준다.[142] 여기서 진정한 치유란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격적인 치유이었다.[143]

그러므로 완전한 치유란 영혼과 마음과 감정의 바람직한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성숙은 상처 있는 내적 상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성숙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교회는 치료의 공동체로서 상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이하고 치료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으로 새롭게 강조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내적 치유 사역이다. 모든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무가 겪은 상처의 질고들이

---

[141] Francis S. MacNut, *치유*, 89.

[142] John P. Milton, *히브리식 사고와 기독교,* 신성종 역(서울: 컨콜디아사, 1991), 49.

[143] 마9:1-8; 요5:1-15

겉에 나타나 있지 않고 가장 깊은 심층부에 나이테라는 흔적으로 남아 있듯이, 신앙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이러한 상처들이 남아있다. [144] 이런 고질적인 요인을 '쓴 뿌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처들은 자신의 성숙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순결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히12:15)고 말씀하고 있다. 성숙을 위해서 쓴 뿌리나 상처를 처리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 한다.[145]

이민 교회의 교인들은 육체적인 상처뿐 만 아니라 내적인 상처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땅에서 사는 이민자들은 복합적인 다민족 사회와 이중 문화권의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낮은 자존감과 인종 차별에 대한 피해 의식은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런 상처는 이민 1세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민 교회는 이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즉 이민 교회의 교인들은 전인격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수고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내면적인 상처들이다. 이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즉 언어, 문화, 신분, 직업, 생계에 대한 불안감 등에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좌절감을 갖게 된다. 때로는 자신이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기도 한다. 이런 감정들은 내적 상처가 되어 열등감, 우울증, 소외감 그리고 자기

144 박혜성, *갈등*, 49.

145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8), 30-31.

비하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는 자기 과시,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많은 미국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회적, 경제적, 신분상승을 이루기 위해 이민을 감행하지만, 미국에서도 신분상승의 기회가 제한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국제 이민은 단기간에 직업, 사회적 지위, 언어, 가족 구조와 기능 등 생활 전반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유발한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울 등 높은 부적응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울은 미국 이민자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National Institutes

of Mental Health, 2000)[146] "우울증의 심각성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 약 15%가 결국 자살로 그들의 삶을 끝낸다"[147]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은 가정과 사회 생활에서는 물론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피해 의식으로 인한 자기 방어이다. 사람들을 경계하여 거리를 두고 늘 교회의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오는 자기 방어 현상이다. 고독이나 고립은 인간의 겪는 최악의 상처이다.[148] 이런 상처에서 오는 것은 절망과 낮은 자존감이다.

---

[146] 배정이, 박현주, "미국 이민 한국인의 우울 및 관련요인," *정신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 3. http:www.mhnursing.or.kr/modules/.../download.html?nu...(accessed Sep. 6. 2013).

[147] Archibard D. Hart, *우울증,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정동섭 역(서울: 요단 출판사, 2000.) 37.

[148] 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서울: 두란노, 2002) 84.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하는데 이것은 이민 사회에서의 외적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만 열중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의식이 극히 강하다. 이것은 반드시 그가 이기주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자아 중심적이라는 말이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칭찬 중독증에 걸려 있든지, 혹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게 된다.[149]

이런 욕구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남들보다 더 높게 보이기를 원하고 어떤 자들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이런 갈망은 교회 공동체내에 분당을 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와 대립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목회자의 영적 수준, 성경 지식, 교회 운영 및 관리 능력에 대하여 불평을 하여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를 질시하고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인간은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150] 하나는 외면 세계(outer world)로서 눈에 보이며 측정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하나는 내면 세계(private world)로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고 예배와 신앙고백이

---

[149]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서울: 두란노, 1993), 93-94.

[150] Gordon MacDona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홍화옥 역(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0), 18.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이 내면 세계에서 외면 세계로 향하게 될 때 인간이 가장 능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151] 이 말은 인간의 중심이 내면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내면 세계가 무너질 때 인간의 외면 세계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숙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 즉 교회, 가정, 사회 생활에서의 인간 관계를 성숙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내적 치유의 중요성이 있다.

내적 치유의 목적은 자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David A. Seamands 는 머리스 와그너 박사의 저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The Sensation of Being Somebody)를 인용하여 ‘첫째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 둘째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자신감’이라고 하였다.[152] 이 세가지 요소들은 모두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내면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치료의 출발은 신앙을 통한 접근이어야 한다.[153]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면에서 형성된 쓴 뿌리는 교회 갈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154] 이러한 쓴 뿌리, 상처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적 치유가

---

[151] Ibid., 29.

[152]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79.

[15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154] Ken Sande, *Redeeming Church Conflicts*(Grand Rapid, Michigan: Baker Books, 2012), 210.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척, 배신, 무시와 차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체험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입으신 치료자이시다."[155]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치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치료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의와 상처를 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극복하셨다.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짊어지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내적 상처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심리와 정신 상태를 전이시킴으로 자신의 상처를 경감시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 사역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막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릇된 가정(hypothesis)을 삶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에게 두려움이나 고독, 혼란이나 회의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그릇된 가정이다. 그러나 이런 고통들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상처들로 이해될 때에만 창조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156]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157]

---

[155]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128.

[156] Henri Nowen, *상처입은 치유자*, 125.

[157] Ibid., 126.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은 치유자"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지나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픔을 극복하셨기 때문이다. 모방이란 닮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다. 모방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행동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행동을 처음에 하는 사람을 "모델"이라고 한다.[158] 일반적 교육에 있어 "모델"이 있듯이, 신앙 교육에 있어 닮아야 할 분명한 모델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아 자신의 영적 훈련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신앙 교육은 개개인의 생활, 즉 가정, 사회, 직장 그리고 교회 등 모든 생활을 성경의 진리에 연관시키고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배우고 모방하며 그를 닮아 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다. 목회자가 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돕는 사역이 치료이며 목회이다.

William Clebsch와 Charles Jaekle은 그들의 책 『역사적 관점에서 본 목회』(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목회의 네 가지 기능을 치료, 지탱, 인도, 그리고 화해로 지적했다.

> 치료는 기독교인이 쇠약해진 사람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이 회복은 또한 새로운 수준의 영적 통찰력과 영적인 강건함을 얻는 것을 전제한다. 지탱은 상처받은 사람이 견디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도는 혼란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현재 또는 미래의 영혼의 상태에 줄 수 있는 확고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해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158] Saul Axelrod, *행동수정기법,* 홍성윤 역(서울: 교육과학사, 1986), 76.

목회는 치료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에 초점을 둔다.[159] 상처나 쓴 뿌리가 일종의 잘못된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잘못 처리된 경험을 제거하기 전에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160]이 통한 영적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잘못 처리된 경험은 성경적 경험에 의해서만 제거 되어지고 치유 되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벽돌은 뽑아 내어지고 제대로 된 벽돌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세계관의 변화는 오직 은혜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161]

성경 공부는 교인들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없애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전인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시키며 훈련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런 성숙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 뿐 아니라 교인들을 이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시민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일 것이다.

---

159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148.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New York: Prentice-Hall, 1964) 8-9에서 재인용.

160 세계관이란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학습되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안점식, 17)

161 안점식, *세계관*, 35.

2. 나눔의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공동체였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공동체가 되자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말씀을 공유하고, 교제를 공유하고, 기사와 표적을 공유하고, 기도를 공유하고, 필요를 서로 채우는 필요 공유의 경험에다가 재산을 공유하고, 찬미를 공유하고, 식탁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경험이 일어났던 것이다.[162] 예루살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했다.[163] 이런 초대 교회의 나누는 삶의 모습이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도적질하지 마라"(출20:15)는 계명은 이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성경에는 부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다른 사람들의 사적 소유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했기 때문이다.[164]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네 가지 개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둘째는 재산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다. 셋째는 필요이상의 재물에 대한 영적 위험이다.

---

[162] 이강천, *행복한 교회*, 34. 사도행전2:41-47.

[163] Ronald J. Sider, *양심선언,* 98.

[164]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487.

넷째는 재물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다.[165]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다고 말한다.[166]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을 보면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과 영적 위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첫째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 둘째는 부자의 소비 양식이다. 그는 소유도 많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이었다.[167] 즉 그의 삶의 형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거부하였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였다. 예수님께서는 소유권에 대한 강조보다는 재물의 사용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재물의 사용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 있는 사람들, 즉 재산을 맡은 '청지기'라고 불렀다(마25:14-30; 눅19:11-27).[168] 이렇게 하나님은 한쪽을 풍요롭게 하셔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다(고후8:14).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다. 존 칼빈은 고린도후서 8-9장 주석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누구든지 넉넉함을 남용해서 도를 넘는 것을 금하신다. 부유한 이들은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의 기본적인

---

165 Ibid., 490.

166 마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167 오덕호,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서울: 규장 문화사, 2000), 330.

168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487.

필요를 채우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요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169]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명을 받은 것이다. 신자들은 받은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170]

초대 교회는 서로에게 속해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공유(행2:44,45; 4:32)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신약 성서 곳곳에서 청지기 직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향, 그 목적을 위한 헌금 모금 등이 언급되어 있다.[171]

*Ekklesia*란 문자적으로 함께 하도록 불림(called out)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불림 받은(called out)"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단어에는 공동 의식이 있다.[172] 이와 같은 "공동체" 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란 결코 단순히 구체적인 모임과는 동떨어진 고도의 추상적 조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

169 David Platt, *래디칼,* 최종훈 역(서울: 두란노, 2011), 175.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Grand Rapids: Baker Book, 2003), 1:297에서 재인용.

170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274.

171 Ibid.

172 Dudley Carl S. and Earle Hilgert, *New Testament Tensions and the Contemporary Church*(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4

단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결코 아무런 상호 관계없이 고립 자족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상호 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하나의 포괄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임을 밝혀준다.[173]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174]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바 그런 자유 속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한다(갈5:1). 즉 교회는 자유한 자들의 친교가 되어야 한다. 종말론적 자유는 공동체의 질서 안에 거점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질서는 <자유의 질서>이어야 하며, 그것은 이미 여기서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율법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친교 안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억압으로부터 서로간의 자유로운 친교로 자유하게 되어있다.[175]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자유는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유이어야 한다.

경제(ecomomy)는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스'(oikos)와 '법', '규칙', 또는 '경영'이라는 의미의 '노모스'(nomos)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경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족경영의 질서'를 의미한다. 가족은 그 안에서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범위이다. 이제 가족이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직계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련된 보다 더 광범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 대가족 체계에 대한 관리는 인간 가족이 곧 하나님의 가족인 만큼 근본적으로

---

173 Hans Küng, *교회란,* 88-89.

174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421.

175 J. Moltmann, *성령의 능력*, 417.

종교적인 여건이 된다. 하나님의 '노모스'(nomos)는 음식, 옷, 거주를 위한 인간의 필요와 함께 하는 활동을 지향한다.[176]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노모스'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내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다. 여기서 분배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e) 가 죽음이 아닌 생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 공동체적 정의(justitia communicative)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할 것이다. [177] 분배적 정의는 정의로운 평화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사실적 상황을 확실히 진단하고 적절하게 보응해야 한다.[178] 구약성서에서 '富(土地)'의 균등한 분배는 평등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해방공동체로의 복귀("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위기 25:38, 42, 55)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신앙적 행위("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레25:36) ,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레25:17,43)인 것이다.[179]

창세기 1장 26-3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 자원을 다스리고 보존할 책임을 주고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파괴 악용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준수해야 할 성서적 명령은 (1) 매 7년 마다 땅을

---

[176]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481.

[177] Jűrgen Moltman, *희망의 윤리*, 311.

[178] Ibid., 312.

[179] 박찬희, "*신앙과 윤리-나눌 수 없는 하나*," http://lord.kehc.org/essay/faith.htm.

휴경하여 땅의 산출력을 증진시키며 매 7일 마다 가축을 쉬게 하고(출23:10-12), (2) 전쟁 중에도 과목을 파괴하지 말며(신20:19-20), (3) 사회 정의를 위하여 곡물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며 …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였으며(레19:9-10), (4) 소산의 십분의 일을 내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도우며(신14:28-29), (5)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매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고, (6) 가난한 사람이 자기 땅을 타인에게 매도했을지라도 매 희년(매 50년 마다 돌아오는 the year of Jubilee)에는 그 토지를 되돌려 받는 제도 등을 의무화했다. 또 신약성서도 경제적 형평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바울은 고후 8:8-15에서 역설하고 있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고"하는 노동관을 데살로니가 후서 3:6-13에서 강조하였다.[180]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토지는 일반 소유 개념과 차이가 있다. 토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 기반이며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었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유화는 이러한 공동체적 이상을 깨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칙 곧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생각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곧 토지의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켜 인간을 물화(物化)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탁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계급의 분화를 낳아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의 구조를 초래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정착 후 농경문화에 적응하면서부터 평등의 정신이

---

[180]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서울: 혜선출판사, 1992), 131-132.

깨어지기 시작했다. 땅의 사유화는 부자와 빈자를 구분되게 하였으며 이렇게 분화되어 가는 가운데 부의 집중과 인간에 대한 낳았다. 파탄된 가정의 구성원은 자신을 대지주(大地主)에 예속시키게 된 것이다.

희년법의 토지 이해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레위기 25:23)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사유화와 그것을 이용한 치부(致富)는 죄악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탐욕과 불의의 결과이며 불신앙의 결과이다. 토지의 사유화를 통한 부(富)의 축적은 바로 이집트에서의 노예상태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신 야웨의 위대한 구원사건의 본질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에 의하면 가난은 운명이나 개인적인 책임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도둑맞은 것이다. 더 나아가 빈부의 격차는 인간적인 유대를 깨뜨리고 인간 상호간의 그리고 야웨와의 친교를 깨뜨린다.

3. 돌봄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편에 서신다. 구약 성경에서 '4대 취약 계층'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로서 이들이 바로 약자들이었다.[181]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그들의 친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가난"하였다. 그래서 가난은 세상에 의해 경멸되고 압제되었으나

[181] 슥7:9-11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야웨(Yahweh)에 의해 사랑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야웨로 말미암아 보복한 전체 민족을 의미하였다.[182]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ger, 이방인)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많이 있다(출22:2-3, 5-7, 21-27, 23:4-5; 신10:18, 16:11, 24:19-21, 27:19; 렘19:33; 사10:2; 렘7:6; 슥7:10). 이처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 그룹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계층들이었기 때문이다.[183] 그들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되었으며(출22:25),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었다.(출22:25; 레25:36-37) 안식년에는 그들의 빚을 삭쳐 주어야 했으며(신15:2), 가난하여 종이 된 사람들을 놓아 주어야 했다.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레25:24; 제340계명 참조)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며, 저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되돌려주어야 했다.(신24:10-13)[184]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 주기로 3년차와 6년차에 십일조를 떼어야 했다.[185]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 법 제도는

---

182 Dudley Carl S. and Earle Hilgert, *New Testament Tensions*, 14-15.

183 이진희,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서울: 쿰란출판사, 2005), 311.

184 Ibid.

185 신14:28-29 “너희는 매 삼 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모아서 성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자치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이 십일조는 예루살렘에 가져가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모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공정해야 하며, 경제 제도는 모든 가정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가난한 자들과 과부 및 고아들—가난으로 인해 혹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어서 공동체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186]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사회에서 연약한 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그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속성이시다.[187]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약자들을 보살필 것을 원하신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공동체적인 삶의 핵심이었다.[188] 미가서에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189]라고 하셨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חסד, chesedh)인데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동정을 의미한다.[190] '헤세드'는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이 된다. 우선 친척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 사용된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붓감을 구하러 하란에 갔을 때 리브가의 부친인 브두엘과 오빠인 라반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때, 내 주인에게 '인자함'(창24:49)으로 대접해 달라고 말한다. 낯선 사람에게 딸을 맡겨야 하는 위험을 주인에 대한 헤세드로 결정해 달라는 거다. 헤세드는 주인과 손님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 여호수아가 여리성을 정복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침투시킨다. 기생 라합이 자신이 그들에게 "선대하였은즉" 그들도 "내

---

186 Ronald J. Sider, *양심선언*, 98.

187 Timothy Keller, *정의,* 최종훈 역(서울: 두란노, 2012), 40

188 Ibid., 신27:19; 렘22:3.

189 미6:8.

190 Timothy Keller, *정의*, 33.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수1:12)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때 사용된 '선대'가 헤세드다. 헤세드는 친구 사이에도 적용된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을 "인자하게"(삼상20:3) 대해 달라고 요청한다. 여기 인자가 헤세드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세속적 관계에 적용되는 헤세드의 의미는 고스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 아니, 세속적 헤세드를 통해 맺는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인간 사이의 헤세드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헤세드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된다.[191]

'공의(정의)' 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쉬파트' (משפט, mishpat)다.[192]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심판하다. 재판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샤파트' (שפט)와 연관되어 있다. 곧 법적 판단과 연관된다. 왕과 사사의 재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통해 미쉬파트가 권위의 행사와 연관돼 있음을 뜻한다. 정의 실현의 책임이 지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미쉬파트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뜻한다. 개별적인 계명들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복수 '미쉬타팀'으로 표기한다. 미쉬파트는 하나님의 미쉬파팀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다. 미쉬파트는 관계 지향적 용어다. 특히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를 지향한다. 이게 제대로 돼야 모든 관계가 바로잡힌다.

---

[191] 홍성혁, "자애(헤세드– חסד)," *활천 통권721호*(2013. 12.), 118–119.

[192] Timothy Keller, *정의*, 33.

정당한 권위·권리 행사도 기대할 수 있다.[193] “미쉬파트는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헤세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가짐이나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면 반드시 인자와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194]

미쉬파트에는 각 사람마다 부유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똑 같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 즉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라는 뜻이다.[195] 교회는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은 자연적 인간 관계를 통하여 주어진다.[196]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공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사회에서 연약한 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그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속성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힘없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공동체적인 삶의 핵심이었다.[197]

---

193 홍성혁, “*정의(미쉬파트– משפט)*,” *활천 통권720호*(2013. 11.), 120–121.

194 Timothy Keller, *정의,* 34.

195 Ibid.

196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74.

197 Timothy Keller, *정의*, 40.

신27:19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렘2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돌봄과 나눔이 있어야 하는가? Timothy Keller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3-15절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반드시 나누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나누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서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과 자신을 위해 쌓아놓기만 하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된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복음 선포와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19:7)는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분께 친절을 베푼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14:31)라는 구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진배없이 여기시겠다는 것이다.[198] 그러므로 가난하고 학대 받은 자를 돌보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삶은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코이노니아'(교제, koinonia)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함께 지냈고 물건들을 공유하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

[198] Timothy Keller, *정의*, 253.

나누어 주었다.[199] 이것은 초대 교회의 돌봄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는 '매일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사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의미한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겸손한 섬김'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집사들의 사역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200] 바울은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갈6:2)라고 하였다. 바울은 종종 지체를 필요로 하는 몸에 대해서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피차 나누고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을 했다. 반대로 그가 열렬히 칭찬한 것은 타인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돌봄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201]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롬15:1). 그리스도인은 '짐을 서로 지는'(갈6:2)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피차 권면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법정에서 정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형제로부터 손해를 보기도 한다.(고전6:7-8)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최소한 그것이 그리스도인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202]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실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사귐이다. 그것은 서로 서로 남의 짐을 몸에 지는

---

[199] 사도행전2:44-47; 4:34-35.

[200] Timothy Keller, *정의*, 104.

[201] Ibid., 120.

[202] Roger H. Crook, *기독교 윤리학*, 183.

십자가의 사귐인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할 수 없다.[203]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불러오고 그것은 다시 외적인 열매로 드러난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의 한 표현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행동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며 주요한 증거이기도 하다.[204]

이런 공동체는 같이 돌보며 나눌 수 있기에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은 그리스도의 제자직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6:20b-23에 나오는 팔복은 마태의 팔복보다 더 인간적이다.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기록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는 적어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그리고 비방 받는 자들을 그와 함께 하는 제자들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팔복은 지혜의 선포이다.(잠8:34; 시1:1; 2:12; 34:8; 119:2)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 영역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지혜는 대부분 계시적인 지혜이지, 자연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서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연관된 이 팔복은 결국 그의 추종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에게 보상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

[203]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129.

[204] David Platt, *래디컬*, 153.

Makarios(대개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다)는 더 정확하게 "~다면 유익하다" 또는 "~다면 축하한다"의 의미로 번역된다. 예수는 가난 그 자체, 또는 배고픔 그 자체, 또는 핍박 받는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이라는 어떤 자학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신실한 제자직이, 그것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어느 날 보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옳은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말을 주목해보자. 앞에서 나올 나머지 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부족을 보상하신다. 더하여 22절은 이런 종류의 불행 또는 부당함을 인자와 연관된 제자들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연관 짓는다. 제자들은 그의 선생처럼 같은 대우를 기대할 것이다. 팔복이 반영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의 사역, 특히 그의 가르침과 설교와 그의 치료의 사역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대되는 상황이다.[205]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팔복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희생하는 삶을 위해 부름 받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를 말해주고 있다.

Paul Tillich에 의하면 그리스도 교회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재 즉 주일마다 모여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성도의 친교를 나누는 구체적인 제도적 교회 밖에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영적 공동체는 일종의 교회 형태로서 형태를 띠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또한 "잠재적 교회"(latent Church)라고 부른다. 물론 "잠재적 교회"란 형태를 띠고

---

[205] Ben Witherington, *Jesus and Money*(Grand Rapids: Brazos Press, 2010), 35.

구체적으로 교회로서의 조직 형태를 지닌 "현시적 교회"(The Manifest Church)에 대응하는 말이다.[206] 그는 영적 공동체를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과 연관 짓는다. 즉 성령의 현존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존재이다.[207] 오순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영적 공동체 특징은 상호 필요한 것을 나눠 쓰고 서로 돕는 사랑의 창조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력이 영적 공동체의 심장의 혈액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인류사에 새로운 차원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다.[208]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의 부족함을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 지체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듯이 말이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욥34:28), 친히 먹이시고(시68:10), 필요를 채우시며(시22:26), 건져 주시고(시35:10), 공의를 베푸시며(시82:3), 일으켜 주시며(삼상2:8), 정의를 베푸시는(시140:12)[209] 분이시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를 돌봄에 있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지도자이시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상징적 대역이다. 어느 생체 구조이든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전 생체 구조로 하여금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

[206] 김경재, *폴틸리히 신학연구*(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2009), 185.

[207] Ibid., 186.

[208] Ibid.

[209] David Platt, *래디컬*, 158.

것이다.[210] 교회를 하나의 생체 구조임을 생각할 때, 목사의 역할은 교회라는 생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 구조들을 돌보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211]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체들을 이루어 살아있는 생체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

[210]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89.

엡4:15-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11] Ibid.,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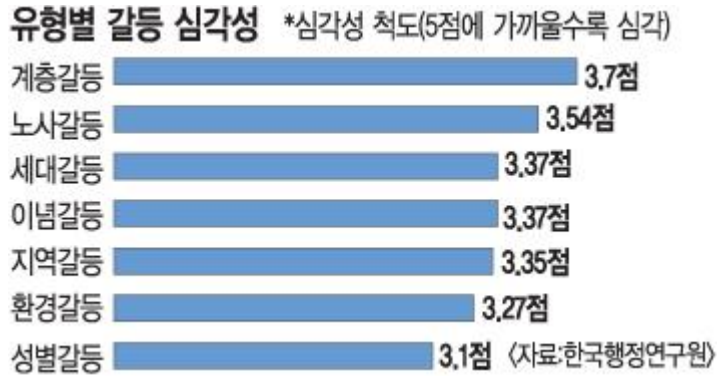
Ⅳ. 교회의 사회적 기능

1. 계층간의 갈등

지난 세기에 이룩한 한국의 빠른 경제는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사회 규범의 부재 현상을 초래하여 구성원들의 일탈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을 낳았다. 상류층은 부정부패와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와 경제적 이익을 축적했다. 이러한 관행은 사회의 중산층을 통해 빈곤층에 이르기까지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강한 거부감, 저항의식을 심화시켜 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탕주의, 편법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사회 전반에 심어주었고 그 폐해는 교육과 종교 분야에서 까지 확산되어 총체적인 부패를 낳게 하였다.[212] 이러한 부작용이란 인한 갈등은 사회 계층간에 심각한 대립과 질시, 더 나아가서는 증오로 나아가게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상규 박사가 발표한 '우리사회의 공정성•사회갈등•사회통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계층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그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213]

---

[212]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의 분석" http://blog.daum.net/yzllrbc/35(accessed Oct. 18. 2013.)

[213] 임상규, "우리사회의 공정성•사회갈등•사회통합 실태조사," *국민일보*, 2012. 12. 12(accessed Oct. 18. 2013).

현대 사회에 계층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컴퓨터 문화이다. 지식 체계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것은 세대별, 계층별로 다른 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정보 전달매체이다. 최재호 목사는 정보 전달 매체로 인하여 형성된 세대를 세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 세대는 ‘농경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이 시대의 주된 정보전달매체는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세대간 정보의 흐름은 장년 세대가 그 전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나, 경험에서 터득된 정보를 아래세대에게 전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정보 전달자로서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세대는 ‘산업화시대’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이 시대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정보전달에 있어서 세대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대는 동일한 정보 전달매체 앞에 세대간의 갈등 구조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부터 분업화와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세대는 ‘정보화시대’에 성장한 세대들이다.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채널을 갖게 된 것이다. 다양한 정보 전달매체는 다양한

집단을 양산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갈등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세대간의 의사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대간의 차이점이 갈등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신앙적 양육을 받고,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214]

세대별, 계층별로 다른 집단이 형성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의 속도는 가속이 되었고, 병행하여 진척되는 것은 도시화(Urbanization)이다. 이런 현상은 대가족 문화를 핵가족화 하였고, 가족과 사회 조직을 유동성 있게 하였다. 이 유동성은 사회의 구조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였다.[215] 이런 가운데서 다원주의는 젊은 사람들의 사고의 형태를 절대적인 가치에서 상대적인 가치로 전환되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대신 '내게 옳고 그른 것은 네게 옳고 그른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철학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현상을 다원주의라고 하며 곧 개인주의와 독립주의의 궁극적인 표현이다.[216]

---

[214] 최재호, "교회는 어떻게 세대간 갈등을 치유할 것인가?" *기독신문* http://www.kidok.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accessed Oct. 18. 2013).

[215] Leith Anderson, *교회를 향한 제3의 물결,* 김철직 역(서울: 기독신문사, 1999), 35.

[216] Ibid., 44.

셋째로 언어로 인한 갈등이다. 이것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이민 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언어는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상이다. 언어는 개인의 사고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 말은 언어가 다르면 개인의 사고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의 연관에 대한 주장으로 '사피어-워프 (Sapir-Whorf)' 가설이 있다. 이 가설은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언어학적인 가설이다.[217]

한국어가 익숙한 이민 1세대와 영어가 익숙한 이민 1.5세대, 그리고 이민 2세 이후의 세대는 언어로 인한 사고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언어만이 원인은 아닐 것이다. 미국 교육에서 은 차이도 있다. 이민 1세대는 한국 문화에, 그러나 이민 1.5세대나 2세대는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견해 차이와 갈등, 교회에서의 세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갈등들은 교회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 부모들과 자녀들, 친구들과 일하는 장소를 포함한 여러 영역들에서도 나타난다. 주위의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성경에는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십대 자녀들과의 마찰, 직장에서의 긴장감과 교회 분열이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평화와 갈등은 성서의 커다란 주제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전부이다.[218] 성경이 화평케 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성경이

---

[217] "사피어-워프 가설" *Wiki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accessed Nov. 14. 2013).

[218] Robert D. Jones, *Pursuing Peace*(Wheaton: Crossway, 2012), 18.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긴장을 조정하도록 도울 것이다.[219]

2. 권력(힘)의 정의

지금 사회에는 영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와 교단의 교세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미국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전례 없이 자원이 풍부한 이 시대에 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잃고 있다. 원인은 리더십 부재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고 했다.[220]

이 문제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교회의 교세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예장 통합은 4만 1594명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기감은 2만 7811명이 줄어들었다. 기성은 2만 1371명이 교회를 떠났다. 기장도 8201명이 줄었다. 도합 10만여 명이 한국교회를 등진 셈이다. 반면 합동은 6321명, 고신은 255명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통계를 냈다.[221] 이 신문은 2012년 한 해 동안 약 10만명의 개신교 신자가 줄었다고 보도하였다. 감신대 이원규 교수는 '2012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를 발표하며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19] Ibid., 19.

[220] Henry and Richard Blackarb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 2003), 21.

[221] 뉴스천지, 2013. 9. 1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56(accessed Nov. 13. 2013).

이 교수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다. 그 책임은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본다” 며 한국교회 이미지는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의 도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된다” 며 “목회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충고했다.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 문제가 교회 쇠퇴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무엇이고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 Reinhold Niebuhr는 "모든 인간이 남에게 무언가에 의존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발부둥 친다"고 믿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하나님에게 의지 해야 하는 의존성을 인정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력을 아직도 갖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Nibuhr는 "이러한 우주적 불안정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를 지배하는 '권력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를 낳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권력욕을 갖게 된다.[222]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을 때 인간은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군림하였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이해에 전적으로 상응하여 자신을 이 세계의 지배자, 인식과 의지의 주체로서 이해했으며, 이 세계를 인간 자신의 수동적 객체로 대립시키는 가운데 인간에게

---

[222] Timothy J. Keller, *거짓 신들의 세상,* 이미정 역(서울: 베가북스, 2012), 146-147.

굴복시켰다. 이 세계 위에 군림하는 지배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이 세계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상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체 세계의 주님이요 소유자이듯이, 인간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주님이요 소유자가 되고자 노력해왔다.(골로새서1:15절에 따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신과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과 지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해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땅의 자연 안에서 모든 생명체와 함께 동일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일방적 지배에서 상호 간의 공동체로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223]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 세대를 향한 목표를 실제로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전5:10-11).[224]

훌륭한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비추어 리더십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리더들만 찾고

---

[223] Jűrgen Moltman, *희망의 윤리*, 137.

[224] Henry and Richard Blackarby, *영적 리더십*, 35.

계신 것은 아니다. 적어도 흔히 생각하는 리더의 개념은 아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찾고 계신다(사59:16, 겔22:30). 하나님이 기꺼이 종으로 빚어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얻으실 때 펼쳐질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끌어 줄 자를 찾고 계신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믿는 리더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람들을 움직여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리더들을 필요로 하신다.[225]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가 그분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지도자가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의 혈기를 부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잘못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신다.[226]

예수님의 리더십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였다.[227]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특징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5:30)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본은 그분의 '방법론'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순종에 있다.

현대 리더십 이론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추종자이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적 리더십에서 열쇠는 리더가 자기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열쇠는 아버지가 계시하신 모든 뜻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리더는 하나님

---

[225] Ibid., 8.

[226] 김원호,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경기: 예수전도단, 2005), 68.

[227] Henry and Richard Blackarby, *영적 리더십*, 40.

아버지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비전은 그 분 자신께 있다. [228]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그 권세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역설적인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역설성은 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낮은 것이 높은 것이며, 아래가 위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며, 섬기는 것이 권력이다.[229]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교회의 일원과 계급 구조 사이에서의 갈등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 개인은 그 자신의 가치와 자율성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 교회 개인과 성직자(officer)들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복종과 우위가 아니라 파트너의 각도에서 보여진다. 전에는 불평들이 중재자로서 중요한 공적인 행위를 가진 통치 관리 기구(sovereign administrative body)에 의한 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 또는 '은혜의 행위'조차 '위로부터'로 여겨지지 않는다. 관심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의 솔직한 토론과 독립적인 재판의 도움으로, 또는 권위적인 아닌 중재자들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란다.[230]

신앙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권위 있는 지도력은 종 됨(servanthood)의 직책에서 나오는 지도력이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도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

[228] Ibid., 45-46.

[229] Richard Foster, Money,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역(서울: 두란노, 2004), 255.

[230] Hans Heimerl, "Arbitration and Reconciliation in Church Disputes," *Judgment in the Church*, ed. William Bassett and Peter Huizing(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7), 70.

관심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231]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종의 나라(the Kingdom of the Servant)로 초청했다. 그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지도자는 기꺼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막9:35)이며, 또는 요한의 기록과 같이(요13:14-17)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다.[232] 이미 그 이름을 통해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상에 거하는 고독하고 무감각한 지배자,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는 공동체적 하나님이시다.[233]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와 무력한 자와 멸시받은 자와 무가치한 자들을 교회에로 모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모든 교회가 확립해야 할 구원사적 의미를 지닌다. 교회는 《노예의 모습》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민중 *Plebs Gottes*》이다.[234]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 ὀχλος<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235]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은 ①하나님의 형상(imago dei/image of God)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②인간의 피조물이며 ③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이다.[236]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

[231] Ibid., 264.

[232]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274.

[233] Jűrgen Moltman, *희망의 윤리*, 137.

[234]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143. H. de Lubac, Betrachtung űber die Kirche, 211ff에서 재인용.

[235] Ibid.

[236] 유석성, *현대 사회*, 171.

자유한 형상을 지닌 것처럼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한 존재임을 뜻한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의존성과 유한성을 지닌 존재를 나타낸다.[237]

인간은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개의 특성 즉 「야누스」적인 양면적 특성이 인간존재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긴장관계를 조성한다. 인간은 이런 긴장관계의 역설적 상황에서 불안(anxiety)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자유하며 동시에 속박된 존재이며, 무제한하며 동시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은 죄의 내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인간은 불안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 죄인이 된다. 죄는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또한 전체 생명의 통일체 속의 하나의 일원에 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에서 야기된다.

인간은 피조물인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권력의지(will to power)로써 자기 불안전성을 극복하려고 한다. 니버는 불안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죄로서 교만(pride)과 육욕(sensuality)을 말한다. 교만의 죄에는 권력의 교만(pride of power), 지식의 교만(pride of knowledge), 덕성의 교만(pride of virtue)이 있다. 권력의 교만에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첫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지위가 안정되어 있는가 혹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둘째, 권력의지의 동기에서 나오는 교만이다.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안전하다고 인식한 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권력을 장악하므로 나오는 죄악이다. [238] 타인에 대한 지배욕은 결코 그 목적한 바를 완전히 달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마음에 적개심내지 반항심을 심어주기 마련이며 그 반항심은 권력

[237] Ibid., 172.

[238] Ibid,. 173.

행사자를 그 권력의 위치로부터 추방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9]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적인 질서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평화의 <질서>의 역사적인 표현들이다.(막10:42-45) 전제정치와 억압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한 그와의 친교 안에서 무력하게 되어 있다. 도래하는 왕국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추종함에서 그리고 자유를 위한 상호간의 봉사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공동체의 평화질서는 이로써 사회내의 지배, 억압의 비인간적 무신적 상황의 극복을 위한 표징이요 발단점이 된다.[240] 그리스도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던 내줌으로 하나님으로 나오는 진정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239] Richard Foster, *돈, 섹스, 권력*, 176.

[240] Jű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417.

V. 교회와 커뮤니케이션(대화)

1. 친밀감 형성

사전 상에서 대화(communication)는 '언어•몸짓이나 화상(畵像)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심리적인 전달 교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를 어원으로 가지는데, 커뮤니케이션(대화)을 정의할 때 이 어원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어원에서도 드러나듯이, 커뮤니케이션(대화)은 적어도 둘 이상이 연관된 과정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서로 주고받을 대상이 없는 혼자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241] 즉 대화란 둘 이상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인간들은 대화를 통해 자기 안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한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의미(meanings)를 나누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이것에 의해 사람들이 알게 된 의미에 관한 공통적인 경험을 얻고 유지하며, 그리고 상호간의 개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협력하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242]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그리고 환경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영역에는 인간 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을

---

[241]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http://www.happycampus.com/doc/4449629(accessed Jan. 20. 2014).

[242] H. Wayland Cummings and Charles Somervill, *Overcoming Communication Barriers in the Church*(Valley Forge: Judson Press, 1981), 10.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기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구별이 감소하고 있고, 그 둘 사이의 차이와 그들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243]

말하는(talking) 능력은 대화(communicating)의 중요한 일면(aspect)이고,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은 또한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을 말함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들음으로 현재의 나를 더 알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의 대화란 이와 같이 언어 전달의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대화의 수단인 언어는 말하는 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 특별한 단어들을 선택했다. 이 단어들은 공동체 삶의 공통된 언어이었다. James Gustafson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에 교제 정체성(social identity)을 주는 언어와 다른 상징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교회는 언어 공동체이다.[244]

"대화한다(communicate)," "공동체(community)" 그리고 "친교(communion)"는 비슷한 의미들을 가진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 친교 가운데 있다. 우리는 주고 받는다. 우리는 우리 전부–몸,

---

[243] William F. Fore, "Communication for Churchmen," *Communication⇔ Learning for Churchmen*, ed. B.F. Jackson et al.(New York: Abingdon, 1968), 26.

[244] Carl S. Dudley and Earle Hilgert, *New Testament Tensions and the Contemporary Church*, 12.

마음, 혼-로 이것을 한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낀다. 우리가 전부이고 우리 자신이다.[245] 대화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남에게 전달하게 된다. 사람들이 대화할(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 사랑이 성숙하는 곳들이다.[246] 교회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를 의사소통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 양태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적이라는 것이다.[247]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또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요 전부이다.[248] 하나님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로서 우주와 인간을 의사 소통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의 "사랑 안에서의 사귐(a koinonia of person in love)을 뜻하며, 인간과 우주를 사귐의 대상(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귐의 공동체로 삼으시는 근원적인 힘이 되신다는 것이다.[249]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또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요 전부이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 사이의 교제로 나타난다. 살아있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요 관계의 연장이란 뜻이다. 세상 만물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

[245]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Wholeness*(New York: A Ginger Book, 2001), 21.

[246] Ibid., 23.

[247] 한국기독교학회, *교회와 코이노니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53.

[248] 최한구,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서울: 성광문화사, 1994), 32.

[249] 한국기독교학회, *코이노니아*, 253.

요일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다.[250]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251] 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모든 것은 만남과 대화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52]고 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기꺼이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쌓이고 문제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승자와 자기 자신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253] 그리고 공동체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거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많은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이해 받기를 원한다. 사실 이해 받으려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종교 공동체에서조차 듣고 이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하고 발생되는 문제들은 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한 목적을 위해 발생한다. 만약에 사람이 대화할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로 환경과 특히 그 환경 안의 사람들과 연관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

[250] 최한구, *커뮤니케이션*, 14.

[251] Ibid., 16.

[252] Ibid., 13. 최한구, *마틴부버의 생애와 사상*(서울: 기독교서회. 1992), 77에서 재인용.

[253] Evertt L. Worthington Jr., *A Just Forgiveness*(Downers Grove, Illinois: IVP Books, 2009), 153.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사람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고 그들에 관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254]이 특히 종교 지도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서 우리의 모델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255]

종교 공동체는 바람직한 대화를 이해함으로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대화는 상대방을 나의 주장 속으로 끌어 들여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상대방의 필요욕구(felt-need)에 충족을, 그것도 진정하고도 영구적인 충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256]

교회 공동체는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해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부모들, 불행한 가족들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양육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들은 이해와 용납으로 듣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257]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간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랑이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사실,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행동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258]

---

[254]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케이션의 첫째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기능은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셋째 기능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넷째 기능은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255] H. Wayland Cummings and Charles Somervill, *Overcoming Communication*, 18.

[256] 최한구, *커뮤니케이션*, Ibid., 21.

[257]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23.

[258] Ibid.

2. 갈등 해결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언자적인 전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열정을 추구하도록 부르신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회적 조화보다는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고 하여금 신앙 공동체와 공적 영역 안에 있는 갈등에 관여하게 한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 모두 또는 일부를 고립시키고, 압제하고, 이용하고 속이는 악의 힘과 구조들을 대적한다. 이러한 악의 힘은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으면서 그리스도안에서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파괴한다.[259]

기독교 공동체의 궁극적인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인간됨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안타깝게도, 죄가 모든 인간 공동체에 침입하여 무서운 기세로 공동체를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구속주요 창조주인 그 분은 사탄이 부패시킨 인간 공동체를 선하게 회복시키기로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것을 논증해 보이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었다.[260]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고립된 개인을 구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261] 이것이 교회이다.

---

259 Hugh F. Halverstadt, *Managing Church Conflict*(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189.

260 Ronald J. Sider, *양심선언,* 97.

261 Ibid., 98.

교회를 정의하는데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말은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표현이 되어왔다.[262]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의사소통 공동체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친교', '교제', '사귐', '나눔', 등의 말로 번역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소통', '통화'의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외, 단절, 격리감이 심화되어 가는 현대 조직사회에서 교회는 마땅히 참 공동체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263]은 교회가 "의사소통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완전한 조화, 사랑 그리고 일치 가운데 계신다. 친교는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다.[264]

스스로 사귐(koinonia)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사귐(대화)의 동반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할 동반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존재의 실존적 구조는 "관계적"이며 "응답적"이라는 것이다.[265]

이런 실존적 구조의 인간에게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 치료한다. 교회

---

[262] 한국기독교학회, *코이노니아,* 245.

[263] Ibid., 246-247.

[264] Timothy S. Lane & Paul David Tripp, *How people change*(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08), 67.

[265] 한국기독교학회, *코이노니아*, 254.

공동체는 치료의 장소가 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의지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믿을 수 있게 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환전하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 공동체에 특성을 주는 성질들—개방된 대화, 효과적인 갈등 해결 수단,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용납들은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분파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hairesis이다. 신약에 아홉 번 나온다. 이 단어는 '분파', '파벌', 그리고 '이단'으로 번역된다. 분파는 분리 또는 분열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자신들의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전체 무리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분리주의의 죄의 고전적 예는 고린도서 1장 11~13절에서 발견된다.[266] 한 편으로 우리는 친교를 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창조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 때문에 필요한 친교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아주 자주, 친교에 대한 열망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우리는 친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바램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구한다. 우리는 인간 관계(relationship)를 통하여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된다.[267]

공동체에는 이러한 깊은 긴장들이 있지만 그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인 은혜 안에서의 개인적인 성장에 놓여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부른다. 우리의 친교는 지속되는

---

[266]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박영은 역(서울: 미션월드(서울, 2007), 158.

[267] Timothy S. Lane & Paul David Tripp, *Change*, 63.

변화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구속의 역사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의 관계를 포함한다.[268]

공동체 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갈등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건강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더 많다는 것은 이상한 듯 하지만 사실이다. 정의대로 갈등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갈등은 자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충돌하는 것," "다르게 되는 것," "다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필요한 갈등은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여지지 않고 창조적인 과정의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269]

갈등이 만약 "싸움"보다 "다름"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다투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차이들을 위한 다름으로 받아들여지고 표현될 때, 분노가 적어질 것이다.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분노는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가 오해되거나 무시된다고 느껴질 때 일어난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공동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들이다. 이 공동체들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으로 대치한다. :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요일4;18). 미워하며 자라거나 자신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구성원들을 지금 그대로의

---

[268] Ibid., 65.

[269]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23.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다.[270] "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발견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거부되고 미워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한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271] 호의를 베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모른다."[272]라는 이유를 댄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원천으로 인식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더 관여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치료 활동을 위한 책임을 나눌 새로운 구조들을 창조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회중들이 명백한 책임의 선(한계)을 정하는 것을 도와 공동체 관리를 위한 타당한 후속 조치(follow-up)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273]

이 후속 조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친밀감과 개방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필요에 부합되는

---

[270] Ibid., 31.

[271] Ibid., 32.

[272] L. Ted Johnson, *The Serving Church*(Arlington Helights, Illinois: Harvest Publication, 1984), 89.

[273]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40.

방법이다. 대화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으로, 이것은 대화의 시작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흥미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둘째, 좋은 청취로, 묻고 대답하기에 가치가 있는 질문은 청취를 하도록 한다. 청취를 할 때 서로간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 셋째, 개인과 개인의 대화로, 좋은 대화자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서로간의 대화를 조절한다. 넷째, 좋은 대화자들은 신호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인다. 더욱 흥미로운 것으로 대화를 돌리거나 분위기를 바꾼다. 다섯째, 같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만이 알 수 있는 "영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범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274]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셨던 대화의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요2:25)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을 아셨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정을 파악하시고 그녀와 대화를 하셨다.[275] 둘째로 대화 대상자를 먼저 마음에 두셨다. 예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사람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필요 욕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제일 관심사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셨다.[276]

---

[274] L. Ted Johnson, *The Serving Church*, 89-90.

[275] 요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276] 요4:4: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한 누구도 마음의 여과기를 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었다.[277] 대화 상대방의 상황과 이해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 역시 상대방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278]

넷째로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피하라.[279] 인간의 필요 욕구는 지역,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대화 방법이 동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사용했던 설교 방법과 축복산에서의 설교방법이 달랐다. 한 곳에서 성공했다고 하여서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대화는 대화 상대 즉 개인이나 청중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3. 말의 영향력

대화의 수단인 말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

[277] 최한구, *커뮤니케이션*, 360-361.

[278] 고전9:19-22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79] 최한구, *커뮤니케이션*, 362.

창조된 인간 속에는 똑 같은 능력이 내재해 있다.[280] 잠언에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의 말도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상이라는 말이다. 말은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움직인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아들들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노아의 말을 볼 수 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창9:2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씀의 권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창조적인 능력은 마음에서 생산되어, 혀로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 말의 형태로 입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거나 행하여 지는 언어는 주위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281] 그러므로 말은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했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하여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표현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다면 말을 즐겁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용혜원 목사의 책 "아름다운 언어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고 생산적인 말을 듣고

---

[280] Charles Capps, 오태용 역*,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19.

[281] Ibid., 153.

자랐으며 몸을 파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인 폭력과 나쁜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 말은 의사 소통이상의 힘이 있다. 잠언 18:21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였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이 말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은 씨앗이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실패와 저주를 심으면 그는 삶에서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 것이다. 입으로 성공과 복을 심고 살면 그는 삶에서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될 것이다.

용혜원 목사는 "탁월한 언어의 능력"에서 "생각이 밭이라면 언어는 씨앗이다. 좋은 생각에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된다."[282]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을 축복하라고 하셨다. 만약에 그 축복이 그 집에 머물지 못한다면 내가 빈 축복은 나에게도 올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비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근심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2%는 근거도 없는 건강에 관한 근심들이며, 10%는 잡다한 문제에 대한 쓸데없는 안달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한다. 이런 이론에 의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92%를 쓸모 없는

---

[282] 용혜원, *탁월한 언어의 능력*(경기: 청우, 2002), 59.

근심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이 이론대로라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6:2)고 하였습니다. 말에 의하여 스스로 얽매인다는 말이다.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제한하고 막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에 얽매이는 것이다.

죽음은 사탄의 권세이다. 사람은 스스로 말로서 사탄의 권세아래 놓이게 한다. 비록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고통가운데 있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권세아래서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모르고 살게 된다. 삶이 어려우니 원망과 한숨이 생에 가득하고 또 입으로 불평하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악순환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꾸어야 한다.

성공에 대한 동기 유발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에 의하면 “인생에 있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단 한 단어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can"과 "can't"이다. 즉 ”할 수 있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t," 즉 ”있다“와 ”없다“의 차이다. 그러나 이 작은 말이 운명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말에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 말만 꺼내면 남을 비판하고 흠을 잡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말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하셨다. 믿음의 열매는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 그 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3:16-18)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12:37-38)

VI. 예배와 교제 공동체의 회복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과 갈등이 존재한다. 한 성경과 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세대간의 생각과 생활 양식은 서로 달라 한 교회 안에서조차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없고 대화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세대간의 간격을 더 넓혔으며 서로간의 오해와 만들었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먼저 서로간의 동질성과 사고의 공통점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갈등을 극복하고 세대간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첫째, '예배 공동체의 회복' 이다.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세대간의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동일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내용이 두 세대를 '포용' 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다. 세대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찬양이나 성경공부와 교제를 위한 소그룹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대간의 '다양성' 은 예배 공동체를 통한 '통일성' 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둘째, '신앙교육의 본질' 이 회복되어야 한다. 신앙교육은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위주의 실용주의 교육과는 분명 다르다. 신앙교육은 삶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한다. 이것은 사역자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하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회복될 때 가능한 일이다. 사역자는 원리를 가르치고, 부모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앙교육은 자녀들의 삶의 틀을 형성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던져진 과제이다.[283]

세대 간의 갈등이 세대 간의 단절된 정보 획득 수단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만들고 더 나아가 갈등을 하게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이다. 신앙은 세대 구별 없이 성경에 대한 하나의 지식을 갖게 한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한 공간에서, 하나의 정보 전달(성경)을 경험할 때 갈등이 해소되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83] 최재호, "교회는 어떻게 세대간 갈등을 치유할 것인가?" *기독신문*. 2005. 1. 17. http://www.kidok.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0436(accessed Oct. 23. 2013).

Ⅵ. 연구과제 수행

1. 연구 시행계획

1) 목적

교회란 무엇인가? 또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한다. Clinebell은 교회를 "생체 구조"라고 정의하였다.[284] Clinebell의 정의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는 구조라는 말에는 그 구조를 이루는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체 구조로서의 교회에는 개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인들이다. 생체 구조의 상태는 그 개체들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듯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교회의 개체인 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필수적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이민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

[284]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13.

접하게 된다. 문화 충격, 언어 소통, 신분 문제, 직업, 불안정한 생활 등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되어 그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는 내적 상처가 되어 왜곡된 방법으로 표출된다. 내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비관, 우울증, 충동적인 성격, 절망 등으로 분출이 되게 되고, 외적으로는 폭력, 이혼, 탈선, 인간 관계의 파괴, 자살 그리고 사회 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내적 상태가 이민 교회에 반영이 될 때에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 교회는 갈등을 겪고 분쟁을 하며 분열되어 버린다. 이런 문제는 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민 교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건강한 생체 구조의 상태를 위해서 개체들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에 대한 올바른 영적 관리와 보살핌이 요구된다. 프랑스 과학자이며 신비주의자인 Teihard de Chardin은 "우리는 영적 경험을 가진 인간 존재(human being)들이 아니라 인간 경험(human experience)을 가진 영적 존재(spiritual being)들이다"라고 하였다.[285] 요한은 "영적 성숙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성숙시켜 건강한 전인적인 삶을 살게 한다"[286]고 한다. 그러므로 교인 개개인에 대한 영적 관리는 교회 회중 전체를 성숙하게 하며 이민 사회에서 성숙한 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이다.

---

[285]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xvi.

[286] 요삼1:2.

바울은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287] 이라고 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며 빛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첫째로 상담을 통하여 교인들의 영적,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며 변화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셋째로 그들의 영적 성숙을 통하여 교회를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며, 교인들이 이민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온전함"이란 말은 "전인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 Margaret Kornfeld는 이렇게 말했다.

> 나는 영적 성장과 자유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건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자신을 파괴(self-destructive)시키고 패배(self-defeating)시키는 내적 영향력(force)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삶에 계속하여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은 온전함을 이루지 않는다. ......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는 양식(mode) 안에서 영혼이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믿는다.[288]

전인적인 성숙은 영혼과 마음과 감정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

---

[287] 딤후3:16-17.

[288]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xv.

이런 돌봄은 교인들을 성숙하게 하며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의 훈련은 도구가 될 것이다. 교인들의 그리스도안에서의 변화와 성숙은 교회와 이민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은 다민족의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로 나타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인 이민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Margaret Kornfeld가 언급한 것처럼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내적 상태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적 상처는 영적 성숙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먼저 내적 진단과 치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성경 공부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리더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기대한다.

(1) 상담을 통한 내적 상태 진단

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내적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상담자인 목회자가 치유를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상담은 문제와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상담이 효율적이 되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먼저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나타내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상담자인 목회자는 연구반원들이 자신의 적응 문제나 갈등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정서화된 태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89] 이 일은 영적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성경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이 과정의 동기를 이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규적인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 병행

성경이 치료와 변화의 지침이 되는 것이기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도한다. 정규적인 모임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문제와 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상자들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은 연구반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만들어 이 모임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규적인 만남을 통하여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내면의 문제들을 내어 놓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사람의 내적 변화는 단지 성경 공부에 의한 지식 전달로만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적 진단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성경 공부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대상자들은 변화가 없는 왜곡된 교인이 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내적 문제는 성경 지식으로 더욱 깊게 감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리더는 대상자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방향으로 진행한다. 한 그룹은 보다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다른 한 그룹은 소수의 참여자들로서 구성된 셀모임이다.

---

[289] Carl R. Rogers,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역(서울: 집문당, 1986), 169.

이 모임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 지식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친교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체 교회의 모임으로 확산시켜 교회 전체를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 생활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대한다.

(3) 간증을 통한 변화와 성숙의 나눔

셀모임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느낀 점들과 내적 변화를 간증의 형식으로 나누도록 한다. 때로는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강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며, 진지한 자세로 성경 공부와 모임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와 성숙은 다른 교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 쇄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4) 평신도 사역자 양성

새로운 선교의 발전은 근대 세계가 교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평신도가 사도직으로의 부르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290] 교회는 세속화, 즉 세상에 대해 개방되고 확대되었다. 문화가 교권주의를 벗어버린 것처럼 성숙한 기독교인의 공동체들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291]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

[290] Jürgen Moltamann, *The Church in the of the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9.

[291] Ibid., 9-10.

것이다. 대상자들의 영적 성숙은 그들이 교회의 다른 모임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셀 모임에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임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들이 바로 모임의 리더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온 교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여 교회를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그리스도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2. 연구 시행실천

1) 프로그램과 그 특성

본 연구는 두 개의 프로그램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 프로그램은 "아가페 제자 훈련 성경공부"로 강의, 자유로운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일 예배 후 친교를 마치고 오후 1:00시부터 소예배실에서 모여 실시하였다. 대략 12명 정도가 자유롭게 참여하였는데 8명은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은 셀 모임으로 1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참여자 12명 중에서 5명이 자원하여 정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라는 전달식 유형보다는 신앙의 삶을 서로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상호 나눔의 유형으로 진행된다.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프로그램 진행 안에서는 '아가페 성경 공부 프로그램'보다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서로를 돌보는 보다 친밀한 교제로 이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인 상호간의 열린 교제를 통하여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끌고 전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 주일에 한번 만나고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이다.

2) 연구반 명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이 름</th><th>연 령</th><th>직 분</th><th>비 고</th></tr>
<tr><td rowspan="10">아가페 훈련 성경 공부</td><td rowspan="5">행복한 교회 성장의 열쇠</td><td>윤철호</td><td>68</td><td>장로</td><td>교회 재정 및 전반 관리</td></tr>
<tr><td>이용일</td><td>70</td><td>집사</td><td>교회 건물 관리</td></tr>
<tr><td>전명수</td><td>65</td><td>권사</td><td>여전도회 회장, 구역장</td></tr>
<tr><td>이명란</td><td>52</td><td>권사</td><td>구역장</td></tr>
<tr><td>서광영</td><td>54</td><td>평신도</td><td>동영상 담당</td></tr>
<tr><td rowspan="5"></td><td>최은선</td><td>47</td><td>집사</td><td>구역장</td></tr>
<tr><td>정준영</td><td>47</td><td>집사</td><td>남전도회 회장</td></tr>
<tr><td>이호영</td><td>69</td><td>집사</td><td>재정 감사</td></tr>
<tr><td>이운룡</td><td>78</td><td>집사</td><td></td></tr>
<tr><td>조해연</td><td>42</td><td>집사</td><td></td></tr>
</table>

3. 연구반 시행 내용

1) 아가페 제자 훈련

(1) 그룹 성격

이 그룹은 약간의 유동성을 주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교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였다. 참여 인원은 평균 10여명 정도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변화가 되며 나아가 전도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

(2) 교재 내용

① 제자 훈련 제1단계: 행복한 나라를 향하여

1단계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개론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으로 8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제자 훈련 제2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제2단계에서는 영적 성숙함으로 이끌기 위하여 보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더 습득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로 이끄는 과정으로 26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제자 훈련 제3단계: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

제3단계에서는 실천하는 단계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을 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16과로 이루어져 있다.

2) 행복한 교회 성장의 열쇠

(1) 교재의 특징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와 적용점들을 활용한 교재이다. 이 교재는 서로간의 갈등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상처 주는 교회에 소그룹 모임과 친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본 모임의 특징은 서로간의 마음을 개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통하여 삶과 신앙을 서로 나누고 서로간의 상처를 치유 또는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이 모임은 참여자들간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 준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루어 나가게 하고, 구성원들 간에 비젼을 나누고 관심을 통하여 구성원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며,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에 대한 기도와 친밀한 관심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교회로 인도하도록 한다.

(2) 모임 장소와 시간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1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한다. 모임 장소는 교회나 원하는 멤버의 집에서 갖는다.

① 모임 진행 방법: 소그룹 모임 진행은 4진 방식으로 한다.

A. 진심 교제(Welcome):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다. 삶 가운데서 느꼈던 예수님을 자랑하기,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 단계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해준다.

B. 진정 예배(Worship):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핵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보좌로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C. 진리 학습(Word):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적용점을 나누는 과정이다. 설교의 주제와 각자의 느낀 점을 나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적용을 나눈다. 이 단계는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D. 진성 기도(Work):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 사역을 하며 전도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다른 사람, 즉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②모임 (전)후: 소그룹 모임이 끝난 후 다과 혹은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돌아간다.

(3) 소그룹 전도 과정 매뉴얼

<table>
<tr><td>-16주</td><td>-14주</td><td>-12주</td><td>-10주</td><td>-8주</td><td>-6주</td><td>-4주</td><td>-2주</td><td>D-Day</td><td>+1주</td></tr>
<tr><td>태신자 정하기</td><td colspan="9">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영혼구원을 위한 투자가 최고 가치다</td></tr>
<tr><td></td><td>중보 기도</td><td colspan="8">전도의 90%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전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4">친구 되기</td><td colspan="7">나머지 9%는 사랑과 섬김이다. 나머지 1%가 복음제시이다</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3">만 나 기</td><td colspan="6">주 1회 이상 만난다</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2">선물 하기</td><td colspan="5">적절한 선물은 마음을 열어준다</td></tr>
<tr><td colspan="2"></td><td>개인 초청</td><td colspan="4">집에서의 식탁은 우정을 깊게 한다</td></tr>
<tr><td colspan="6"></td><td>오이코스만찬</td><td colspan="3">세 사람 함께 친구되게 한다</td></tr>
<tr><td colspan="7"></td><td>초청장 발부</td><td colspan="2">정중한 초청</td></tr>
<tr><td colspan="8"></td><td>아가페만찬</td><td></td></tr>
<tr><td colspan="9"></td><td>대추수축제</td></tr>
</table>

4. 연구 시행 과제 추정

신앙의 목적은 변화와 성숙이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292] 이 변화와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이 신앙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교인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한 기간과 믿음의 성숙은 비례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 결과는 신앙의 모양만 있을 뿐 내용은 없는 교인을 만든다. 이러한 교인은 교회 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이 미성숙한 신자가 된다. 이런 신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적인 면보다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개개인의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영적 성장을 이룰 때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존감을 갖게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이민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성숙의 시작은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293] 칼 융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80%가 정신 질환 문제가 아닌 종교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294] 이것은 신앙을 통한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내적 변화를 위한 성경 공부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

[292]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93] 임영수,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 *목회와 신학*(서울: 두란노, 2005년 3월), 173.

[294] 임영수, "영적 성장의 목표," *목회와 신학*(서울: 두란노, 2005년 3월), 172.

1) 자존감 회복을 통한 삶의 변화

낮아진 자존감의 회복은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두고 파괴적이고 패배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군림하지 않으나 자신감 있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며, 지배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능력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정의가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통하여 성숙되며, 사회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2)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비굴이나 굴종으로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이며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의 표현이다. 영적 성숙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공동체와 친교 공동체의 기능이다. 그런데 친교 공동체의 본질이 변질되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인 이민자들은 복합 문화 속에서 타민족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갖는 친교는 이민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인들은 내적 변화와 성숙으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친교, 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필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인식의 변화는 행동을 변화시키며 교회는 더 이상 대립과 분쟁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4. 연구 시행 결과 평가

1) 설문 조사 결과

아가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10명 중에서 8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9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9개 항목의 설문 내용 중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질문을 하나로 묶어 4가지로 구분해 보면 1)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2)교회의 문제에 대한 생각, 3)성경 공부가 문제 해결에 주는 영향, 4)성경 공부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교회 내의 성도간의 갈등의 극복과 치유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위의 1항의 "성경 공부 후 성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대한 대답으로 '이전과 같다'라는 응답이 2명,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응답이 1명,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5명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같다'라고 응답한 2명의 참여자들은 평소에 성경을 늘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성경 공부가 8명의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2항의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5명이 대답을 하였다. 이들 중에서 4명이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해심 부족, 개인적인 태도)를 지적하였고, 1명은 자녀와의 함께 하는 신앙 생활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본 교회는 오랫동안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 왔고, 이 갈등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요인이 되었다.

위의 3항의 "성경 공부가 교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기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8명 참여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경 공부 전에는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입장으로부터 바뀐 큰 변화이다.

위의 4항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7명의 참여자가 대답을 하였는데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친절히 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성경 공부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아가페 제자 훈련 성경 공부'와는 별도로 실시한 '행복한 교회 성장의

열쇠'라는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개방하여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였다. 개인들의 신앙의 체험들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그냥 스쳐버릴 수 있는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교제와 돌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전 교회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교인들의 변화와 기대

(1) 교인들간의 대화와 친교 회복

교회의 기능에 대한 무지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 형태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제를 나누어 교회의 본질을 변질되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의 공동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미성숙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하였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예배와 친교였다.[295] 이민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는 신앙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친교 공동체이다. 물론 교회는 단순한 친교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이민 1세들은 타민족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그들에게 정서 불안, 감정의 억압, 피해 의식 등으로 나타나고, 이민 생활의 부적응과 개인의 정신적 영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의 붕괴와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교회는 그들의

---

[295] 행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억압된 내적 문제들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민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친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친교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고 타민족과의 삶의 경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몰론 이민 교회에게 친교의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선적으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 질 때 교회는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생체 구조의 상태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개체에 의해 결정되듯이 생체 구조로서의 교회는 그 개체인 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 목회란 그 개체인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생체 구조로서의 교회가 제대로 성숙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296] 그래서 목회자는 한 개인을 보살피면서 동시에 전 회중을 보살펴[297]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관리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개개인의 영적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보살피셨다.[298]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가능하고, 그 사귐을 통하여 서로 훈련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

[296] H.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13.

[297] Ibid.

[298] Howard Snyder, *공동체*, 93.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귐이다.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1:3) 고 하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시다. 디트리히 본훼퍼는 교회를 "사귐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사귐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분이었다.[299] 그 사귐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는 그 사귐을 통하여 나타난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사귐의 본질이 빗나갔을 때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빗나간 사귐을 통하여 교회 내에 파당이 형성되며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비즈니스나 친교를 위한 장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장소, 자신을 도와주는 장소 등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민 교회가 미국에서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한인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그 사귐의 목적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목회자는 그들의 필요와 목적을 그리스도안에서의 사귐으로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람 중심적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귐을 통하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훈련된 영적

---

[299] Dietrich Bonhoeffer, *신자의 공동생활,* 12.

성숙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사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고 말씀 하셨다. 그의 성육신은 섬김과 희생을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섬김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300]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그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그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심과 양자로 삼아 주심이 없이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301] 섬김의 사귐을 할 수 없다.

섬김의 사귐은 디아코니아, 기독교 신앙의 비젼 또는 꿈에 따라서 개인의 재능, 은사와 행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타내는 행위이다.[302] 이 사귐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

[300] Ibid., 13.

[301]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50.

[302] Evelyn Eaton Whitehead and James D. Whitehead, *Christian Life Patterns* (New York: Crossroad, 1999), 136.

종들의 삶은 주인의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란 섬김의 사귐이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케리그마, 즉 "예수는 주시다"를 주셨고,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의 사귐은 참 교회이다'라고 했다.[303] 교회는 케리그마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나누는 사귐이 존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투리아, 즉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를 명령하셨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304]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선포하는 교회의 증거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한 섬김의 표현이다.

본 교회는 예배 후 친교를 통한 교제의 기쁨이 많이 상실되었던 상태였다. 이것은 오랜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대립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난방비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친교가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나 친교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하여 예배 후 친교를 강조하였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친교 준비를 하였다. 도너츠와 커피 대신에 점심을 준비하게 하였다. 친교 장소도 소예배실에서 친교실로 옮겨 교제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음식 준비에 대하여 부담감으로 불평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교의 교제가 익숙해지고 있다. 음식을 준비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나눔을 통하여 섬김의 교제의 회복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

[303]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142.

[304] Ibid., 131.

공동체의 형성을 기대한다.

2)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바른 신앙 체계를 세우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교인들의 성격과 견해의 차이가 원만하게 극복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영적 미성숙의 모습이다.

교회의 문제로 나타난 갈등은 교회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원인이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밖으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였다. 성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교회의 직분과 교회에 다닌 횟수와 친분 관계를 통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이것은 감정의 마찰이 되어 목회자의 교회 운영에 대하여 비협조인 태도를 보이며 가까운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그들을 설득하며 파당을 형성하여 분쟁을 야기시켰다.

분열과 갈등으로 바울의 지적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이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본 교회 뿐 아니라 이민 교회들이 안고 있는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다. 이 파당들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며 능력과 희망이다.[30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306]

---

[305] Jürgen Moltamann, *The Church*, 5.

[306] Bruce Nicholls,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 다원주의,* 노봉린 역(서울: 횃불, 1998), 40.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면서 또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함께 함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라고 하였다.[307]

바울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고전1:13) 라는 말로 교회에서의 파당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느 무리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그것을 인간적이고 얕은(puffed-up) 영적 지혜로 바꾸어버렸다고 여겼다.[308]

교회 내의 파당과 분쟁은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개로 나누는 행위였다.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몸"이란 단어는 어떤 다른 은유(metaphor)보다 교회의 영적이고 기능적인 실재(reality)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실재는 교회의 하나됨(corporate unity)을 근거로 하고 있다.[309]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비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로서 교회의 하나됨이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체들이 몸을 토대로 하나로

---

[307] 고전 3:1-3.

[308] Güther Bornkamm, *PAUL*(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71.

[309] Orlando E. Costas, *The Church and its Mission*(London: Coverdale House Publishers, 1976), 25.

묶여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것들은 다양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지체들은 몸인 교회 안에 있어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의 대리자로서 그의 명령과 기능에 복종해야 한다.

>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수단이다. ......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행하시기 위하여 몸을 가지셔야 하셨다. 부활하신 지금도 그는 이 세상에 그의 복음과 사역의 도구로서의 몸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310]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시는 몸이 되어 복음과 사역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의 관심은 복음이어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증거였다. 바울은 분쟁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부당하게 여겼고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 교회에 밝혔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바울 자신이 소수의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311] 이 말은 교회의 관심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

[310] Ibid.

[311] 고전 1:12-17에서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하였다.

세례를 받았으며, 그 이름을 담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쟁은 교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파당을 만들었고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였다. 이것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교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로 인한 분쟁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민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민 교회는 친교와 비즈니스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의 성공과 영향력은 교회에서의 영향력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 이것은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집단으로 변질시키게 한다.

교회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잠재된 자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사역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절박한 명령이며, 이 명령은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의 중심을 이룬다.[312] 그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 사역의 우선이며[31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312] Howard Snyder, *공동체*, 132.

[313] Ibid., 134.

것이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명령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제대로 성경 공부가 되지 않아 신앙 상태는 마치 깡통처럼 모양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경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일부 교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하였고 그들의 영적 갈증을 풀기 시작했다. 전에는 교회 모임이나 회의가 분쟁의 발단이 되었으나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았다.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신앙의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개인의 신앙들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

3) 교회 직분에 대한 재 인식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 정의는 억압과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과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권위와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부정하는 일이다. 사람의 감정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공통된 결과 중의 하나가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이다.[314] 이것 때문에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으며

---

[314]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 65.

자신을 부적응자로 여겨 열등감을 가지거나,[315] 또는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 하려 하고,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애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316]

이 욕구가 교회에서 잘못된 계급과 권위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책임과 헌신을 하도록 주어진 교회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 되어 버리고 권위 의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게 된다. 교회의 머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생긴 수직 구조는 교회 안에 계급과 권위 의식을 만들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지시하고 지배하려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중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본 교회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가정들이 교회를 떠났다. 교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마치 직분을 교회의 권력 구조로 생각했다. 장로들이 교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장로들이 먼저 서로 분열되었고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하였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준이 없이 교회 다니는 년수 대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세움을 받은 후에도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교회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만 마음에 두는 듯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혁명적인 자유(radical liberation)를 선물로 주셨는데,

---

[315] Ibid., 22-23.

[316] Ibid., 93.

이것은 죄와 그 열매인 이기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불의와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3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사셨다. 그는 성육신 하셨고,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탄생을 먼저 알리셨고, 병든 자들,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로서 사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권위와 지배 구조를 책망하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증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낮아짐, 평등, 함께 함이 있다.

차별, 소외, 무시, 억압과 지배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격과는 상반되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교회에 권위, 계급과 지배 의식 또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다. 이 세상은 지배와 억압으로 그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섬김의 길을 보이심으로[318] 무엇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임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증거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정의와 자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나 억압, 소외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Gerhard von Rad에 따르면 정의(justice)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

[317] Gustavo Gutlêrrez, *Liberation*, 103.

[318] Howard Synder, *공동체*, 150.

나와 다른 사람, 동물,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표준이다.[319] 이 정의는 평등이며 함께 함이며 해방이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죄와 그 결과들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에 그의 정의와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320]

예수께서는 이 정의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자유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하는[321]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 공동체의 회중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부당한 권위와 지배를 배척하여 함께 하는 이민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교회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하기에 지위에 근거한 계급과 권위 의식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세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참여는 교회를 불의(anti-justice)하게 만드는 것이다. Howard Synder는 교회에서의 참여의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 교회에서의 권세는 지위, 계급 조직 또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봉사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직위, 신분, 계급 또는 명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으로서 어떻게 일하였는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322]

종으로의 섬김은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영적 성숙의 모습

---

[319] Letty M. Russell, *Church in the Round*(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17.

[320] Gustavo Gutlèrrez, *Liberation,* 103. 죄의 결과는 약탈, 불의, 미움이다.

[321] James H. Cone, *God of the Oppressed*(New York: Orbis Books, 1997), 8.

[322] Howard Synder, *공동체*, 148.

이며, 교회는 "나만(only me)"이 아니라 "함께'(together)"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숙될 것이다. 인간은 "분리"보다는 "연결(connection)"을, "개인"보다는 "관계"에 대한 인식과 또한 인간이 상호 의존한다는 인식을 통하여 성숙한다[323] 고 한다. 그러므로 "섬김"과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천되는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다.

본 교회의 잘못된 직분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직분의 의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생성된 내 교회라는 인식은 교회가 가진 횟수 만큼 뿌리 깊은 듯 하다. 반복되는 성경 공부와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알고 섬김의 공동체로 바뀌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4)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자존감 회복과 평신도 지도자로의 영적 성숙.

성숙이란 영혼과 마음과 감정의 바람직한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성숙은 상처 있는 내적 상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성숙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교회는 상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이하고 그를 모방하면서 성숙하여 자기 스스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함께 영적 성숙을 이끌 수 있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이민을 온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즉 언어, 문화, 신분, 직업, 생계에 대한 불안감 등에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좌절감을 갖게 된다. 때로는 자신이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

[323] 강남순, *현대여성신학*(서울: 기독교서회, 2002), 172.

느낌을 받고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기도 한다. 이런 감정들은 내적 상처가 되어 열등감, 우울증, 소외감 그리고 자기 비하 등으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는 자기 과시,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는 피해 의식으로 인한 자기 방어이다. 사람들을 경계하여 거리를 두고 늘 교회의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오는 자기 방어 현상이다.

또 철새 유형의 신앙 생활이다. 이민 교회는 이런 유형의 신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된다.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하는데 이것은 이민 사회에서의 외적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런 욕구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남들보다 더 높게 보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 수준, 성경 지식, 교회 운영 및 관리 능력에 대하여 불평을 하여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를 질시하고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이런 철새 유형의 교인들은 늘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철새처럼 떠돌아 다닌다.

성경 공부는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전인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시키며 훈련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성숙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 뿐 아니라 교인들을 이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한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성경 공부와 셀 모임은 서로간의 애로점들과 삶 가운데 얻게 되는 신앙 체험을 나눔으로 교회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돌봄은 관심과 사랑에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런 돌봄의 헌신은 교회를 더욱 사랑으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5. 연구수행 이후의 변화

1) 개인 신앙의 변화

(1)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되었다.

서로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은 벽이 교인들 사이에 있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평이 있었다. 교회 쇠퇴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그러나 성경 공부 후에 자기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자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며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2) 교회 구성원들 중에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신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었던 성도가 성경 공부 참여를 통하여 변화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본인이 할 일을 찾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로 변화되었다. 몇 명의 성도들은 본인의 고백 뿐 아니라 주위 교우들도 변화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예배에 대한 집중과 교회 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달라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 전체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다.

2)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1) 교회 소문이 좋아졌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뀌어 지고 있다. 전에는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 지며 구성원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는 외부에 우리 교회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소개하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바뀌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예전에 교회를 떠났던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한다.

(2) 교인과 교회 재정이 증가했다.

2013년 3월 말에 비해 1년이 지난 현재 예배 참여하는 숫자가 거의 배가 증가 되었고, 재정도 1/3이상이 증가 되었고 꾸준하게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6. 목회 유능성 개발

(1)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의 리더로서의 목회자는 지시자 또는 교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324] 그러므로 먼저 목회자는 인간의 본성과 변화에 대한 성경의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해는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심리적인

---

[324] Robert F. Stahmann & William J. Hiebert, *Premarital & Remarital Counseling*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97), 152.

면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2) 심리학에 대한 연구와 지식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상처는 영적 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왜곡된 심리 상태는 전인적인 성장과 영적 성숙을 왜곡시킨다. 또 이민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과 위축은 인간 관계나 교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살피면서 교인들을 지도해야 하기에 목회자의 심리와 정신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교회의 리더로서의 목회자는 또한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회자는 상담자로서 내담자로 오는 교인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적당한 동정심, 신중성, 이해심을 말한다. 둘째는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로 인간 행동과 그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 규정 요인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25]

(3)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몸의 각 지체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이루어 지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모든 개체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개체들에게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역할이 주어질 때 그들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교인들의 각자의 역할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교인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

[325] Carl R. Rogers, *카운슬링*, 248-249.

(4)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감소의 원인을 목회자의 리더십에 두고 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에 익숙해야 한다. 교회는 나누며 돌보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대리자이다. 이것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Ⅶ. 결 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비록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지만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완전한 승리에 도달하지 않았다.'[326]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교회 안의 상처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간 관계의 결과이다. 여기서 생긴 갈등과 다툼은 교회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생각된다. 바른 신앙 교육과 훈련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위치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다. 특히 이민 교회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더욱 많은 갈등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

---

[326] Everett L. Worthington Jr., *A Just Forgiveness*(Downers Grove, Illinois: IVP Books, 2009), 148.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호4:6)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화평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화목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해방의 공동체이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일 뿐 아니라 억압받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공동체이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이었다. 그래서 성서의 약자들, 즉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이었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와 나누는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였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지식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를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다. 성경을 통한 제자로서의 학습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점을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았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간의 화해의 시작이었다. 셀 모임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교회의 분위기의 변화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부흥을 위한 열정을 가지게 하였다. 성경공부와 셀 모임은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위한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BIBLIOGRAPHY

A. 한국 서적

강남순. *현대 여성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2002.

김경재. *폴틸리히 신학 연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2009.

뉴잉글랜드 미주 한인이민 백주년 기념 사업회. *뉴잉글랜드 한인사*. 서울: 선학사, 2004.

김원호.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 경기: 예수 전도단, 2005.

박해성. *교회 내 갈등*. 서울: 나침반, 2006.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8

안재도. *이민 광야와 코리안 아메리칸*.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오덕호.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서울: 규장 문화사, 2000.

유석성. *현대 사회와 사회 윤리*. 경기: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97.

윤응진. *기독교 평화 교육론*.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이강천. *행복한 교회 성장의 열쇠*. 경기: 푸른초장, 2009.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서울: 혜선출판사, 1992.

이진희.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 서울: 쿰란출판사, 2005.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최한구.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성광문화사, 1994.

한국기독교학회. 교회와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B. 번역 서적

Anderson, Leith. *Dying for Change*. *교회를 향한 제3의 물결,* 김철직 역. 서울: 기독신문사. 1999.

Axelrod, Saul. *행동수정기법*. 홍성윤 역. 서울: 교육 과학사, 1986.

Blackarby, Henry and Richard.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3.

Bonhoeffer, Dietrich. *Gemeinsames Leben*.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Bright, Joh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2.

Capps, Charles. *The Tongue, A Creative Force.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오태용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Clinebell, Howard J. *The Pastoral Counselor in Social Action. 목회와 지역 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Crook, Roger H.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학.* 최봉기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6.

Foster, Richard. *Money, Sex & Power.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역. 서울: 두란노, 2004.

Hart, Archibard D. *Dark Clouds Silver Linings*. *우울증,*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정동섭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0.

Keller, Timothy J. *Generous Justice*. *정의.*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2.

Keller, Timothy J. *Counterfeit Gods. 거짓 신들의 세상.* 이미정 역. 서울: 베가북스, 2012.

Kűng, Hans. *Was ist Kirche?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9.

MacNut, Francis S. *Healing*. *치유.* 변진석, 변창욱 역. 서울: 무실, 1994.

Milton, John P. *Our Hebrew-Christian Heritage*. 히브리식 사고와 기독교. 신선종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1.

Moltman, Jűrgen. *Ethik der Hoffnung*. *희망의 윤리.* 곽혜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Moltman, Jűrge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Nicholls, Bruce. *The Unique Christ in Our Pluralistic World.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다원주의.* 노봉린 역. 서울: 횃불, 1998.

Nouwen, Henri J. M. *The Wounded Healer.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2.

Platt, David. Radical. *래디컬.*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Rogers, Carl R.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재.* 한승호 역. 서울: 집문당, 1986.

Seamands, David A. *The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1993.

Sider, Ronald J.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 이지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Snyder, Howard. *Community of the King*.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김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9.

Viola, Frank. *1세기 관계적 교회.* 박영은 역. 서울: 미션월드, 2007.

Wright, G.E. & Fulle, R.H. The Book of the Acts of God. *하나님의 구원 행동.* 김득중·이군호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1.

C. 외국 서적

Bassett, William and Huizing, Peter. *Judgment in the Churc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7.

Bornkamm, Gűther. *Pau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Cone, James H. *God of the Oppressed*. New York: Orbis Book, 1997.

Costas, Orlando E. *The Church and its Mission*. London: Coverdale House Publishers, 1976.

Cummings, H. Wayland and Somervill, Charles Somervill. *Overcoming Communication Barriers in the Church*.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1.

Dulles, Acery . *A Church to Believe In*. New York: Crossroad, 1982.

Dudley, Carl S. and Hilgert, *Earle. New Testament Tensions and the Contemporar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Gutlė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New York: Orbis Books, 2002.

Halverstadt, Hugh F. *Managing Church Conflic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Helmick, SJ. Raymond G. “What is Church Responsible to do about Conflicts?” *Overcoming Violence*. Waltham, MA: Boston Theological Institute, 2010.

Heimerl, Hans. “Arbitration and Reconciliation in Church Disputes.” *William Bassett and Peter Huizing, Judgment in the Churc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7.

Jackson, B.F. Jr. *Communication⇔Learning for Churchmen.* New York: Abingdon, 1968.

John, Robert D. *Pursuing Peace*. Wheaton: Crossway, 2012.

Johnson, L. Ted. *The Serving Church.* Arlington Helights, Illinois: Harvest Publication, 1984.

Lewis, G. Douglass. *Resolving Church Conlficts*. San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1.

Moltamann, Jürgen. *The Church in the of the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Rodney L. Petersen & Marian Gh. Simion, ed. *Overcoming Violence: Religion, Conflict and Peacebuilding.* Newton: Boston Theological Institute, 2010.

Russell, Letty M. *Church in the Roun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Sande, Ken. *Redeeming Church Conflicts*. Grand Rapid, Michigan: Baker Books, 2012.

Stahmann, Robert F. & Hiebert, William J. *Premarital & Remarital Counseling*.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97.

Gutle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New York: Orbis Book, 2002.

Kornfeld, Margaret. *Cultivating Wholesness*. New York: A Ginger Book, 2001.

Whitehead, Evelyn Eaton and Whitehead, James D. *Christian Life Patterns*. New York: Crossroad, 1999.

Witherington, Ben. *Jesus and Money*.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0.

Worthington , Everett L. *A Just Forgiveness.* Downers Grove, Illinois: IVP Books, 2009.

D. 논문

Irvine, Harold B. *Pastoral Priorities in Healing a Church Spilt*. South Hamilton, MA: Gordon-Conwell, 2003.

Preede, Laura Joann. *Calling the Church to Purity: A Study of Church Discipline*. South Hamilton, MA: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1992.

E. Article

배정이, 박현주. "미국 이민 한국인의 우울 및 관련 요인." *정신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년 3월.

임영수.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5년 3월.

임영수. "영적 성장의 목표."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5년 3월.

홍성혁. "정의(미쉬파트– משפט)." *활천.* 통권720호, 2013. 11.

홍성혁. “자애(헤세드– חסד).” *활천.* 통권721호, 2013. 12.

A. B. Simpson. “신유는 어떠한 것인가?” *활천.* 통권706호. 서울: 활천사, 2012년 9월

F. Internet 자료

이신건.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대한 연구,” http://sgti.kehc.org/bookreview/19.htm

최재호, “교회는 어떻게 세대간 갈등을 치유할 것인가?” *기독신문.* 2005. 1. 17. http://www.kidok.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0436

“몰트만 박사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 *크리스챤투데이.* 2012. 5. 5,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5491

디지털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 (2012. 5. 9.)

디지털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2013. 9. 12.)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http://blog.daum.net/yzllrbc/35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http://www.happycampus.com/doc/4449629/

“에이레네–평화/ 성경 원어의 의미” http://blog.daum.net/youl0901/16505369/

"샬롬의 뜻 다섯 가지." http://blog.daum.net/avsol/452/ (2012. 4. 11.)

"사피어-워프 가설." *Wiki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뉴스천지, 2013. 9. 1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56

Jamestown-Yorktown Foundation, "A Brief History of Jamestown"
http://www.historyisfun.org/history-jamestown.htm

Tim Lambert, "A SHORT HISTORY OF BOSTON, MASSACHUSETTS, USA"
www.localhistories.org/bostonus.html